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원 의견조사 연구

FGI·IDI 기초분석 보고서

연극

2025.05



담당부서 : 기획조정팀
Tel : 061)900-2150
연구 기획·진행 : 연극 연구협의체(이훈경, 황진수, 한하경, 김관)
작성 : ㈜케이스탯리서치

Contents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2. 조사 목적 1
3. 조사 설계 및 내용 1

제2장. 조사 결과

[그룹1] 교육기관 관계자 : 고교, 대학, 민관아카데미 9
[그룹2-1] 예술창작자 16
[그룹2-1] 예술창작자 : 신진/청년 17
[그룹2-1] 예술창작자 : 중진 22
[그룹2-1] 예술창작자 : 중장년 27
[그룹2-2] 예술창작 지원 핵심 전문가(조력자) 32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37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홍보·마케팅·온라인(티켓포함) 39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공연장 45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축제감독 50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프로듀서 55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독립프로듀서 60
[그룹4] 관람객 64
[그룹4] 관람객 : 마니아 관객 및 분야 전문가 65
[그룹4] 관람객 : 마니아 관객 72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78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중앙 및 지자체 80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중앙 및 지역 문화재단 86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간지원 관계자 90

Contents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관 후원기관 관계자 95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연극인 복지 민관(지원) 관계자 99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105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강원권 106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대구, 경북권 112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광주, 전남권 117
[그룹7] 주제별 그룹 : 기술 융합 창제작 및 유통 122
[기타] 중간정리 간담회 : 전국 유통, 홍보마케팅 등 128

표 목차

[표 1-1]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1
[표 1-2]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2
[표 1-3]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3
[표 1-4]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4
[표 2-1]참석자 명단 [그룹1] 교육기관 관계자 : 고교, 대학, 민관아카데미 9
[표 2-2]소그룹 구성 : [그룹2-1] 예술창작자 16
[표 2-3]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창작자 : 신진/청년 17
[표 2-4]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창작자 : 중진 22
[표 2-5]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창작자 : 중장년 27
[표 2-6]참석자 명단 [그룹2-2] 예술창작 지원 핵심 전문가(조력자)
: 무대 스태프, 드라마터그, 평론가 32
[표 2-7]소그룹 구성 :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37
[표 2-8]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홍보·마케팅·온라인(티켓포함) 39
[표 2-8]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공연장 45
[표 2-9]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축제감독 50
[표 2-10]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프로듀서 55

Contents

[표 2-11]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독립프로듀서 60

[표 2-12]소그룹 구성 : [그룹4] 관람객 64

[표 2-13]참석자 명단 [그룹4] 관람객 : 마니아 관객 및 분야 전문가 65

[표 2-14]참석자 명단 [그룹4] 관람객 : 마니아 관객 72

[표 2-15]소그룹 구성 :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78

[표 2-16]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중앙 및 지자체 80

[표 2-17]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중앙 및 지역 문화재단 86

[표 2-18]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간지원 관계자 90

[표 2-19]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관 후원기관 관계자 95

[표 2-8]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연극인 복지 민간(지원) 관계자 99

[표 2-20]소그룹 구성 105

[표 2-21]참석자 명단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강원권 106

[표 2-22]참석자 명단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대구, 경북권 112

[표 2-23]참석자 명단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광주, 전남권 117

[표 2-24]참석자 명단 [그룹7] 주제별 그룹 : 기술 융합 창제작 및 유통 122

[표 2-25]참석자 명단 [기타] 중간정리 간담회
: 전국 유통, 홍보마케팅 등 128

01

조사개요



Ⅰ.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수행기관 : ㈜케이스탯리서치
■ 조사기간 : 2024년 8월 20일(화) ~ 2024년 12월 20일(금)
■ 조사방법 : FGI 및 심층면접

2. 조사 목적

■ 정부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역할 재설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예술위에서 추진해 온 주요 장르별·기능별 지원사업들이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잘 작동했던 것과 한계가 무언인지를 진단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과 변화 상황에서 예술위원회의 역할 모색의 근거 수집 필요
■ 이에 연극 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현장 전문가와 연구협의체(연극 분야 창제작, 관련 지원심의 및 정책연구 전문가)로 참여 인원을 구성하여 FGI 및 IDI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조사 설계 및 내용

■ FGI는 총 8개의 상위그룹, 22개의 하위그룹으로 진행함

[표 1-1]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그룹], 일시·장소	하위그룹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1] 교육기관 관계자 ('24.08.20, 예집 영상회의실)	고교, 대학, 민관아카데미	ㅇ 교육 현황, 교육기관 역할, 학생 진로, 교육계 대외환경 변화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C, PA-D, PA-E ㅇ 참석자 : PA001, PA002, PA003(Zoom 참여), PA004, PA005(서면자문), PA006(서면자문)
[그룹2-1] 예술창작자 ('24.09.05, 예집 세미나실1)	G1. 신진/청년	ㅇ 분야 진입, 교육, 노동 대가와 삶의 질, 창작자 커리어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C, PA-D, PA-E ㅇ 참석자 : PA007, PA008, PA009, PA010, PA011

[표 1-2]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그룹], 일시·장소	하위그룹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2-1] 예술창작자 ('24.09.02, 예집 대학로 1층 회의실)	G2. 중진	ㅇ 분야 진입, 교육, 노동 대가와 삶의 질, 창작자 커리어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C, PA-D, PA-E ㅇ 참석자 : PA012, PA013, PA014, PA015, PA016(서면자문)
[그룹2-1] 예술창작자 ('24.09.25, 예집 대학로 1층 회의실)	G3. 중장년	ㅇ 분야 진입, 교육, 노동 대가와 삶의 질, 창작자 커리어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C, PA-E ㅇ 참석자 : PA017, PA018, PA019, PA020
[그룹2-2] 예술창작 지원 핵심 전문가(조력자) ('24.09.11, 예집 영상회의실)	무대 스태프, 드라마터그, 평론가	ㅇ 분야 진입, 교육, 전문인력 교육, 인력 현황, 노동 대가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C, PA-D, PA-E ㅇ 참석자 : PA021, PA022, PA023, PA024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24.10.30, 예집 영상회의실)	G1. 홍보·마케팅·온라인 (티켓포함)	ㅇ 분야 진입, 현황, 작품 저작권, 관객 모객, 관극문화, 마케팅 유통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C, PA-D, PA-E ㅇ 참석자 : PA025, PA026, PA027, PA028, PA029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24.11.12, 예집 세미나실2)	G2. 공연장	ㅇ 공연장 현황, 지역 공연 환경, 작품 유통 및 관객 개발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C, PA-D, PA-E ㅇ 참석자 : PA030, PA031, PA032, PA033, PA034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24.10.18, 예집 세미나실1)	G3. 축제감독	ㅇ 분야 진입, 교육, 축제 기획 인력 현황, 창작자의 노동 대가, 커리어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C, PA-D, PA-E ㅇ 참석자 : PA035, PA036, PA037, PA038, PA039(개별심층인터뷰)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24.10.31, 예집 세미나실3)	G4. 프로듀서	ㅇ 분야 진입 경로, 전문 인력풀, 교육 현황, 관객 모객 및 문화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C, PA-D, PA-E ㅇ 참석자 : PA040, PA041, PA042

[표 1-3]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그룹], 일시·장소	하위그룹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24.09.13, 예집 세미나실3)	G5. 독립프로듀서	ㅇ 분야 진입, 교육, 작업 범위와 역할, 팀구성, 작업 강도, 보상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C, PA-D, PA-E ㅇ 참석자 : PA043, PA044
[그룹4] 관람객 ('24.11.26, 예집 세미나실1)	G1. 마니아 관객 및 분야전문가	ㅇ 관람 현황, 관람 문화, 유료 관객 비율, 공연 정보 습득 및 소통 매체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D, PA-E ㅇ 참석자 : PA045, PA046, PA047, PA048, PA049
[그룹4] 관람객 ('24.11.12, 예집 세미나실2)	G2. 마니아 관객	ㅇ 관람 현황, 관람 문화, 유료 관객 비율, 공연 정보 습득 및 소통 매체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C, PA-D, PA-E ㅇ 참석자 : PA050, PA051, PA052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24.12.19, 예집 세미나실2)	G1. 공공지원 - 중앙 및 지자체	ㅇ 지역 문화정책 및 지역 예술계 현황에 대한 인식, 정책 한계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D, PA-E ㅇ 참석자 : PA053, PA054, PA055, PA056, PA057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24.11.21, 예집 세미나실1)	G2. 공공지원 - 중앙 및 지역문화재단	ㅇ 지원사업 현황, 예술생태계 현황, 지역-중앙 연계방안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D, PA-E ㅇ 참석자 : PA058, PA059, PA060, PA061, PA062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24.12.13, 예집 세미나실1)	G3. 민간 지원 관계자	ㅇ 민간 지원단체 현황, 지원 방식, 민간 VS 지원 차별화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D, PA-E ㅇ 참석자 : PA063(추가 의견 서면자문), PA064(추가 의견 서면자문)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24.12.20, 예집 세미나실1)	G4. 민관 후원기관 관계자	ㅇ 예술후원 현황 진단, 후원 현황 평가, 현 후원체계 장단점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D, PA-E ㅇ 참석자 : PA065, PA066, PA067

[표 1-4]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그룹], 일시·장소	하위그룹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서면 자문 진행)	G5. 연극인 복지 민관 (지원) 관계자	ㅇ 분야 진입, 교육, 인력 수급 및 현황, 서면계약, 사회적 위계, 저작권 보호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참석자 : PA030, PA031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24.12.16, 춘천 봄내극장)	G1. 강원권	ㅇ 지역 연극 제작 및 유통 현황, 공공 공연장 현황, 개선방안 지원사업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D, PA-E ㅇ 참석자 : PA070, PA071, PA072(Zoom 참여), PA073, PA074(서면자문)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24.12.16, 온라인 줌)	G2. 대구, 경북권	ㅇ 지역 연극 제작 및 유통 현황, 공공 공연장 현황, 개선방안 지원사업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D, PA-E ㅇ 참석자 : PA076, PA077, PA075(개별심층인터뷰)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24.12.10,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 카페라운지)	G3. 광주, 전남권	ㅇ 지역 연극 제작 및 유통 현황, 공공 공연장 현황, 개선방안 지원사업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D ㅇ 참석자 : PA078, PA079
[그룹7] 주제별 그룹 (서면 자문 진행)	기술 융합 창제작 및 유통	ㅇ 기술 융합 창작 시도 배경 및 계기, 교육, 창제작 및 유통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참석자 : PA085, PA086, PA087
[기타] 중간정리 간담회 ('24.12.20, 예집 세미나실1)	전국 유통, 홍보마케팅 등	ㅇ (공통) 분야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공공부문 예술지원 역할 등
		ㅇ 협의체 : PA-A, PA-B, PA-D, PA-E ㅇ 참석자 : PA080, PA081, PA082(Zoom 참여), PA083

02

조사결과



[그룹1] 교육기관 관계자 : 고교, 대학, 민관아카데미

1. 일시

■ 2024년 8월 20일(화), 17:30 ~ 19:3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3. 참석자 명단

[표 2-1] 참석자 명단 [그룹1] 교육기관 관계자 : 고교, 대학, 민관아카데미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C	남	50대	30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1)]	-	-	-
참석자(n=6)	대학-평론/연출	PA001	남	50대	8.5년
	대학-연기	PA002	여	50대	30년
	대학-지역대	PA003(Zoom 참여)	남	60대	28년
	민관 아카데미	PA004	남	50대	30년
	고교	PA005(서면자문)	여	40대	13년
	대학-평론/연출	PA006(서면자문)	남	50대	3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교육 현황 및 여건
- 교육기관의 역할
- 교육자에 대한 기대 역할
- 학생 진로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연극 교육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환경 변화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학생들의 관심 부족
- 학과 통합/폐지
- 예산 부족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1) PA-E의 경우, 연구 용역사 진행 담당자로 성별, 연령대, 경력에 대해 작성하지 않음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연극 교육과 생태계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

1) 고교

(1) 연극 전용 공간 부족

■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연극동아리를 중심으로 연극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극 전용 공간이 부족해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음

"우리 학교에서는 연극을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하는데, 연습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제대로 연습하기 어렵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죠. 다행히 경기광주 지역에는 학생 중심 연극 공간인 '청석에듀씨어터' 같은 곳이 있어서, 연극 강사와 협력하여 공간을 대여해 연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번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 차원의 연습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연극 교육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PA005)

2) 대학, 민관 아카데미

(1) 학원 중심의 연극 입시

■ 연극 전공 대학 입시가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학원에서 배운 정형화된 답변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됨

"연출 전공도 학원을 다닌다는 게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예전에는 연출 전공 학생들은 자기만의 생각과 개성이 강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정해진 답변을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연출을 왜 하려고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좋아했고, 사람들과 협업하는 게 즐거워서 연출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의 경험과 연결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학원에서 배운 답변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창의적인 연출가가 나오기가 어렵죠. 연출가는 자기만의 시선과 해석이 중요한데, 입시 과정이 너무 기계적이다 보니 획일화된 연출가들이 양산되는 느낌이 들어요." (PA002)

(2) 학과 경쟁률 및 교육 관련

■ 연극 전공의 경쟁률은 유지되고 있지만 배우 중심의 교육이 지속되고 있음

■ 배우 외에도 연출, 조명, 무대 디자인, 극작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도 필요함

"연극 전공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10:1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여전히 연극을 하려는 학생들은 많아요. 배우 전공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극작과 연출, 무대미술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연극 교육이 너무 배우 중심으로만 가면, 전체적인 연극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려워요. 연출, 조명, 무대 디자인, 극작 같은 분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PA006)

(3) 연극 교육의 세분화 관련

■ 연극 전공이 세분화되면서 학생들이 다른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연극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완성되는 예술인데, 세분화된 전공으로 인해 창작 과정에서 소통과 협업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우리 학교에서는 전공이 나누어져 있어서 특정 전공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다른 전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조명 전공 학생은 조명만 공부하고, 연출이나 배우들이 하는 작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연극이라는 것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완성되는 예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명 전공 학생이 무대 디자인을 할 때 배우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연출 전공 학생이 조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공연을 올릴 때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PA001)

3) 지역 연극인의 생계 유지 관련

■ 지역은 서울의 대학로처럼 연극 중심의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아, 연극 전공자들이 지역 축제, 거리 공연, 마당극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OO 같은 지역에서는 연극 무대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도 배우들이 필요해요. 서울처럼 대학로 중심의 연극 생태계가 확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지방에서는 연극을 전공한 친구들이 연극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 축제에서 퍼포먼스를 하거나, 거리 공연, 마당극 같은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이를 통해 일부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연극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생계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죠" (PA003)

나. 생태계 이슈

연극의 입시화, 지역 불균형, 생계 불안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1) 고교

(1)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연극을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학생들이 창작 역량을 기를 기회를 잃고, 대학에서도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움

> "요즘은 연극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서는 입시를 위한 교육만 하기 때문에 창작적인 감각을 기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 와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PA004)

(2) 일반 고교 연극 지도교사의 어려움

■ 예술강사와 지도교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음

■ 지도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학생 교육과 소통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지도교사는 예술 강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실제 교육에는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술 강사는 연극 작품 선정, 연습 과정, 학생들의 연기 지도 등을 담당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산 집행, 공문 작성, 대회 참가 신청 등은 지도교사가 해야 합니다. 이런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정작 학생들과의 소통이나 교육적인 지원이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A005)

2) 대학, 민관 아카데미

(1) 서울 - 지역 불균형 관련

■ 학원 중심의 입시가 서울 주요 대학과 지역 대학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음

- 서울 주요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 강화
- 지역 대학과 연극 생태계가 점차 약화되는 문제점 발생

> "입시 학원이 서울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지역 대학들은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지방대 진학을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반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지방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던 학생들이 서울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연극 생태계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저는 지방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방 연극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PA002)

(2) 졸업 후 진로

■ 졸업 후 극단 활동을 해도 수입이 불안정해 생계유지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거나 연극계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 학원 강사, 이벤트 행사 등 다른 직업으로 전향

■ 연극을 전업으로 하는 연극인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졸업하고 극단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공연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일정한 소득이 없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대학로에서 한 작품을 올리려면 연습 기간이 최소 2~3개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배우들이나 창작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공연을 올리고 나서 티켓 수익을 나누는 방식인데, 작품이 흥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연극을 하면서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생계 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PA001)

"졸업하고 극단에서 활동하고 싶어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연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은 연극을 전공하고 졸업하면 당연히 연극계에서 활동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죠.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찾거나, 연극을 하더라도 교육이나 다른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A006)

"OO에도 대형 연기 학원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하면 연극을 계속하기보다는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결국 연극계에는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배우들이 학원 강사나 이벤트 행사 관련 직업으로 빠져나가고, 연극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PA003)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연극 교육과 생태계 지속을 위해 지원 확대, 교육 방식, 창작 방식 등 개선 필요

1) 고교

(1) 연극 동아리 지원 확대 필요성

■ 고교 연극 동아리는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 차원에서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

> "학교 예산만으로는 연극 동아리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정부나 교육청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연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거나, 외부 공연을 준비할 때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은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무대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PA005)

(2) 청소년 연극제 활성화 필요성

■ 청소년 연극제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공공 차원에서 청소년 연극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연극제를 통해 학생들이 연극을 경험하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로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연극 전공으로 진학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극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경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연극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PA005)

2) 대학, 민관아카데미

(1) 연극 교육 개선 관련

■ 연극 교육은 전공 간 융합을 통해 창작 과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함

- 연기 외에도 무대기술, 조명, 음향 등 다양한 분야 경험 확대 필요

> "지금처럼 세분화된 전공 시스템보다는, 연극 창작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야 졸업 후에도 극단 활동에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특정 전공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분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 제작의 전체적인 과정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연출을 전공하는 학생도 무대 디자인이나 조명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면, 졸업 후 극단에서 더 유능한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001)

"연극을 하려면 연기뿐만 아니라 무대기술, 조명, 음향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A004)

(2) 지방 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지역 대학과 서울 주요 대학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연극 교육 활성화 필요

- 지역 대학과 지역 극단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서울 주요 대학과 지역 대학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대학에서도 연극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예를 들면 지역 대학과 지역 극단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졸업 후에도 학생들이 지역에서 연극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PA002)

(3) 연극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마련 필요

■ 극단 입단이라는 기존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영상 콘텐츠와의 결합, 창작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등 연극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활동 모색 필요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극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예전처럼 무조건 극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극과 영상 콘텐츠를 결합한다든가, 창작형 연극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PA003)

(4) 졸업 후 실무 교육 관련

■ 졸업 후 연극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극단에서 다시 배워야하는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졸업 후에도 연극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학생들이 극단에서 다시 배워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극계에서는 보통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학에서 배운 것이 실제 연극 현장과 다르기 때문에, 극단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졸업 후에도 현장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006)

[그룹2-1] 예술창작자

1. 구성

■ G1 신진/청년, G2 중진, G3 중장년의 3개의 소그룹으로 진행함

[표 2-2] 소그룹 구성 : [그룹2-1] 예술창작자

구분	일시	장소	참석 인원
G1. 신진/청년	2024년 9월 5일(목), 10:30 ~ 13:3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분야 전문가 5인
G2. 중진	2024년 9월 2일(월), 11:30 ~ 13:30	대학로 1층 회의실	분야 전문가 5인
G3. 중장년	2024년 9월 25일(수), 12:00 ~ 13:50	대학로 1층 회의실	분야 전문가 4인

2. 소그룹별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 G1. 신진/청년 : 고정 수입이 없는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창작자들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G2. 중진 : 현재 연극 생태계는 자생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음

■ G3. 중장년 : 생계 유지 어려움, 대중 관심 감소, 교육과 진로 등의 변화 속 연극 생태계는 위축되고 있음

나. 생태계 이슈

■ G1. 신진/청년 : 공공 지원의 한계, 저임금 고강도 노동, 수도권 인력 유출 등으로 연극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음

■ G2. 중진 : 양극화, 팬덤 의존, 신진 창작자의 활동 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G3. 중장년 : 제작 환경, 세대 간 단절, 경쟁력 약화 등으로 연극 생태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 G1. 신진/청년 : 지원사업 구조 개선, 행정 일관성 확보, 지역 창작 환경 조성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G2. 중진 : 창작자 대상 기회 확대, 배우 지원 체계 개선, 창작 안정성 등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G3. 중장년 : 지역 연극제 활성화, 연금 도입, 형평성 있는 공공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필요

[그룹2-1] 예술창작자 : 신진/청년

1.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10:30 ~ 13:3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3. 참석자 명단

[표 2-3] 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창작자 : 신진/청년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C	남	50대	30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5)	연출가	PA007	여	30대	10년
	연출가	PA008	여	30대	8년
	배우	PA009	남	30대	8년
	연출가	PA010	남	30대	6년
	배우	PA011	남	40대	1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연극분야 첫 경험
- 분야 진입, 교육
- 창작자의 노동 대가와 삶의 질
- 창작자 커리어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연극 작품과 시장
- 환경변화 : 기술발전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세대 간 간극
- 분야 내 사회적 위계
- 새로운 창작반식 도입 및 활성화
- 생활예술 연극
- 법·제도
- 창작자 교육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고정 수입이 없는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창작자들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1) 고정 수입 관련

■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생계와 연극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음

■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구조상 프로젝트 종료 시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임

"[...] 제가 어떤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것, 그것이 항상 불안한 지점이고. 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PA007)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지금도 연극을 하고 있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보수가 명확히 이루어지거나, 기관과의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서, 한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매년 같은 고민을 반복하는 게 좀 지치는 부분이에요 [...] 이런 구조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PA010)

2) 창작의 지속 가능성 관련

■ 최근 연극 현장은 최신 트렌드(기후위기, 접근성 등)와 담론을 반영하고 있지만, 창작자들이 연극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속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요새 현장에서 접근성이나, 기후위기나, 이런 최신 트렌드나 담론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내 생활은 지속 가능한가, 이런 고민이 들고. 또 이게 과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이 사실 이 연출 일을 시작하면서 부쩍 많이 안 좋아져서 [...]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아요." (PA008)

나. 생태계 이슈

공공 지원의 한계, 저임금 고강도 노동,
수도권 인력 유출 등으로 연극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음

1) 공공 지원사업의 효과성 관련

■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작품 제작비로 모두 소진되기에 지원금이 생계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극단/제작사를 운영하는 대표일 경우, 제작비 외에도 추가 지출이 있기에 작품을 할수록 가난해지는 구조임

■ 지원 사업의 일부 자부담 구조로 창작자가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창작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킴

"지원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생계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지원금을 받아서 작업을 하면 결국 제작비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아무래도 대표로 있다 보니까 제 것도 다 그냥 나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작업을 하면 할수록 저는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개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PA007)

"지원 사업을 받으면 지금 창작주체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10%예요. 그러면 그 돈이 결국 대표가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나는 돈을 어디서 벌어야 하죠? 지원금으로 공연을 만들고, 티켓 수익을 모아도 결국 운영비로 다 나가고, 대표가 자부담을 해야 한다면 결국 연출자가 개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작자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 이런 부담을 줄이는 지원 구조가 필요해요." (PA010)

2) 저임금 고강도 노동 환경 관련

■ 저임금과 과로가 만연해 있으며, 연출가로서의 건강이 악화될 정도의 노동 환경이 문제임

"예를 들면, 작업을 하나 하면 밤을 새우는 일이 많고, 연출자로서 현장에서 모든 걸 챙기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져요. 저임금 과로 환경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연출자로서도 그렇고, 동료들도 보면 대부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PA008)

3) 세대 간 소통 및 교류 단절 관련

■ 연극계 내 기성 세대의 권위주의적 문화로 인한 수평적 소통의 어려움에 따라 세대간 소통이 단절되는 경향이 드러남

■ 또한 열악한 작업 여건 속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권위주의 문화를 회피하는 신진 연극인들과 기성세대 간 멘토링 및 교류 기회가 부족하여 자연스러운 예술적 경험과 지식 전수가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나타남

"세대 단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기성세대의 생각이에요.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건 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죠." (PA007)
"기성세대의 권위주의가 심해서 청년 예술가들은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요." (PA010)

4) 지역의 창작 관련 애로사항

■ 과거와 달리 지역 내 연극영화과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청년 극단을 창단하고 있지 않아 지역 연극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지역 내 예술단체와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지역 내 창작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부산에서는 이제 청년 극단이 새롭게 생기지 않는 추세예요. 연극영화과 졸업생들이 모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구도 줄고 있고, 연영과 폐과 위기까지 나오면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극단을 만들거나 팀을 꾸려서 창작하는 흐름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산에서는 점점 신진 예술가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지역 연극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연극은 더욱 쇠퇴할 거예요." (PA009)

"부산에 있는 예술 단체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피부로 와닿구나,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극단도 많았고, 졸업하고 극단을 차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다들 서울로 올라가고, 부산에서 계속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 이게 지속되면 부산에서 창작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PA009)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지원사업 구조 개선, 행정 일관성 확보,
지역 창작 환경 조성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1) 생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마련 필요

■ 지원사업의 자부담을 해야 하는 현 구조 개선 필요

■ 지원금이 실제 예술가의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지원 사업을 받으면 지금 창작주체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10%예요. 그러면 그 돈이 결국 대표가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PA007)

"지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득이 되기도 하지만, 실도 많아요. 차라리 개인 활동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사업이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프로젝트 단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니까요. 오히려 프리랜서로 공연 연출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 지원 사업이 예술가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해요." (PA010)

2) 지원사업 행정절차의 일관성 확보 필요

■ 행정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함

"관에서 지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결국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행정적인 일관성이 없어서,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PA011)

3)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필요

■ 지역에서 연극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마련 필요

■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이 지역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임. 지역에서도 수행 가능한 현실적인 지원사업 마련 필요

"[...] 작품할 때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단원들이 많아서 숙박 문제, 생계 유지 문제가 커요. 지역에서 계속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결국 서울로 가는 이유는, 여기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지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해요 [...] 그렇지 않으면 지역 예술가들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PA009)

"OO문화재단은 젊은 아티스트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피상적인 지원이 많아요. 문체부 사업 같은 것도 지역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지역 대표 예술단체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문체부에서는 지역과 1:1 매칭 펀드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OO의 어떤 구청도 그 매칭 펀드를 지원해 주지 않으려 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이런 식으로 지역 예술가들이 국가적인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독립적인 창작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PA009)

[그룹2-1] 예술창작자 : 중진

1.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11:30 ~ 13:30

2. 장소

■ 대학로 1층 회의실

3. 참석자 명단

[표 2-4] 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창작자 : 중진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C	남	50대	30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5)	극작가	PA012	남	40대	19년
	연출가	PA013	남	40대	23년
	극작가	PA014	남	40대	17년
	배우	PA015	남	30대	15년
	배우	PA016(서면자문)	남	40대	19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연극분야 첫 경험
- 분야 진입, 교육
- 창작 인력풀 및 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
- 창작자의 노동 대가와 삶의 질
- 창작자 커리어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연극 작품과 시장
- 환경 변화 : 기술 발전 및 기후 위기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세대 간 간극
- 분야 내 사회적 위계
- 법·제도
- 창작자 교육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현재 연극 생태계는 자생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창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음

1) 창작에만 전념할 수 없는 환경

■ 작은 극단들은 운영을 위해 제작자가 여러 역할을 겸해야 함
- 본업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작품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침

■ 연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창작자는 드물며,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음
- 공연 유무에 따라 생활의 불안정함이 반복됨

"제가 극단 대표지만 직접 트럭도 몰고, 조명도 오퍼하면서 인건비를 줄여요. 제작자가 여러 역할을 해야만 극단이 유지됩니다. 결국 배우도, 연출도, 기획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유지해야 하는 현실이에요. 공연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하다 보면 본업에 집중하는 게 어려워지고, 작품의 완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극단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걸 해야 하니까 결국 창작보다는 운영에 더 신경을 쓰게 되죠." (PA013)

"연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창작자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고, 연출자로 섭외되는 경우도 많지 않죠. 연극을 계속하려면 다른 일과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극단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일도 병행해야 했어요. 연극만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공연이 없을 때는 연극과 상관없는 일을 해야 하고, 연극을 하는 기간에도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PA016)

2) 지원제도에 의존하는 구조

■ 연극 생태계는 지원제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자생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창작이 어려움

■ 창작자들은 생계를 위해 연극 외의 일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음

"지원 제도가 없으면 상업 컴퍼니가 아닌 이상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지원금에 의존해야 되고. 또 자생력을 키우라고 하지만 자생력을 키우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제 그런 절벽을 부딪히는 그런 계속 반복되고 겨우겨우 운영하는 느낌입니다. 공연을 하려면 지원 사업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한 작품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연속적인 작업이 어렵고, 지원을 못 받으면 그냥 멈추는 거죠. 연극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창작자들은 연극을 본업으로 삼기 어려워지고, 결국 다른 생계 수단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PA012)

나. 생태계 이슈

양극화, 팬덤 의존, 신진 창작자의 활동 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1) 상업 컴퍼니 - 민간 극단 간 단절

■ 현재 연극 생태계는 팬덤에 의존하는 상업 컴퍼니와 지원금에 의존하는 민간 극단으로 양분되어 있음

■ 두 영역 간 단절되어 교류가 없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대학로의 연극 생태계를 보면, 자본 논리에 의해 굴러가는 상업 컴퍼니와 지원 제도에 의존하는 민간 극단으로 나뉘어요. 두 세계는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르고, 넘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상업 컴퍼니에서만 활동하는 배우들은 '요즘도 극단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만큼 두 영역이 단절되어 있고,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해요. 이쪽은 지원금에 의존하고, 저쪽은 팬덤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연극 자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PA012)

2) 배우 팬덤 의존 현상 관련

■ 연극 시장이 배우의 팬덤에 의존하면서 작품성보다는 배우의 인지도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일반 관객이 아니라 팬층 위주로 돌아가는 연극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배우들한테도 '너는 몇 줄을 채울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관객이 아니라 '티켓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극이 작품성보다는 배우의 인지도로 평가되는 경향이 커졌어요. 저는 연극이 특정 배우의 팬덤이 아니라 작품 자체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PA015)

3) 진입 경로로서 기성 극단 의존 경향

■ 신진 창작자들은 기존 극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적음

■ 새로운 극단을 만들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기성 극단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에 연극을 전공한 후 창작자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기존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창작자 개인이 새로운 방향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창작자가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작업을 하기보다는 기존 극단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진 창작자들이 새로운 극단을 만들기도 하지만, 운영이 쉽지 않다 보니 지속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PA01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창작자 대상 기회 확대, 배우 지원 체계 개선, 창작 안정성 등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

1) 경력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 부재

■ 국공립 극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젊은 창작자들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경력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왜 국공립 단체의 예술감독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슷한 세대의 창작자들이 반복해서 선임될까요?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관객층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세대가 연극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30~40대 창작자들이 국공립 극장의 주요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주로 기성 창작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체되지 않는 구조라서 젊은 창작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원이 단순히 작품 제작에만 머물 게 아니라, 창작자들의 경력 성장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PA016)

2) 배우 지원체계 개선 관련

■ 배우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습비 및 생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 "배우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거의 없어요. 제작비 지원뿐만 아니라 배우 개개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들도 연습비를 지원받거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연극을 한 작품 하고 나면 그다음 작품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데, 이걸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예요." (PA015)

3) 창작 지원 관련

■ 상업성이 낮은 실험적 연극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지금은 관객을 많이 모으는 공연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데, 상업성이 없는 작품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공연이 아니면 지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실험적인 연극이나 창작극 같은 경우, 흥행 가능성이 낮으면 애초에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지원을 받더라도 너무 제한적이라 지속적으로 공연하기가 어려워요." (PA013)

■ 지원금과 극장 확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창작 준비는 되는데 극장과 지원금이 변수가 되니까 모든 게 불확실해요. 미리 지원이 확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1년 전에 캐스팅과 섭외를 마치는데, 지원금 발표가 너무 늦어지면 그게 다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배우들도 1년 전에 스케줄을 확정해야 하는데, 극장과 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으면 스케줄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공연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습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최소한 지원이 좀 더 빠르게 결정돼야 하고, 일정 기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PA014)

■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기 지원이 아닌 고용 기반의 장기적 지원 구조가 필요함

"현재 지원금이 창작 과정과 공연 발표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고용 기반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작품을 만들 때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해요. 지금 구조에서는 작품이 끝나면 지원도 끊기니까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연극을 본업으로 삼기 어려워지고, 결국 다른 생계 수단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PA012)

[그룹2-1] 예술창작자 : 중장년

1.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12:00 ~ 13:50

2. 장소

■ 대학로 1층 회의실

3. 참석자 명단

[표 2-5] 참석자 명단 [그룹2-1] 예술창작자 : 중장년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C	남	50대	30년
	민간	PA-E	-	-	-
참석자(n=4)	배우	PA017	남	60대	45
	배우	PA018	남	60대	34
	배우	PA019	남	60대	39
	연출가	PA020	남	80대	50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전문 연극인 교육
- 창작 인력풀과 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
- 창작자의 노동 대가와 삶의 질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예술의 사회적 가치
- 연극 작품과 시장
- 환경 변화 : 기술 발전 및 기후 위기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세대 간 간극
- 분야 내 사회적 위계
- 법, 제도
- 창작자 교육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생계 유지 어려움, 대중 관심 감소, 교육과 진로 등의
변화 속 연극 생태계는 위축되고 있음

1) 생계 유지 관련

■ 과거에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연극에 몰두했으나, 현재는 생계 문제로 연극 활동이 어려워짐

■ 생계가 불안정해 연극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 예술인 대상 연금 제도의 부재로 중장년, 원로배우의 나이에도 생계 유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80년대만 해도 배우가 되기 위해 정말 모든 걸 다 바쳤어요. 하루 종일 극단에 나가 있었죠. 공연이 있으면 포스터 붙이고, 극단 사무실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르바이트가 일상이 됐습니다.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니까 연습 시간도 밀리죠. 물론 그때도 생활이 풍족했던 건 아니지만, 사명감 하나로 버텼어요. 요즘은 그런 여유도 사라진 것 같아요." (PA017)

"젊었을 때 굶어가며 연극하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술인 연금 같은 게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모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없으니 젊은 세대도 떠나고, 연극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PA017)

2) 대중의 관심 부족과 연극의 위상 저하

■ 대중의 관심이 낮아지고 연극계 관계자 외 일반인 관객이 줄어들었음

■ 과거에는 연극이 고급 예술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관심도와 위상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체감됨

" [...] 어떻게 보면 요즘은 공연 보러 가면은 전부 다 다 아는 얼굴이, 전부 다 다 아는 얼굴들이고.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순수 관객이 너무나 없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연극을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그런 자괴감도 좀 들기는 합니다." (PA019)

"예전엔 연극 담당 기자가 각 언론사에 다 있었어요. 연극이 고급 예술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연극 기사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연극 자체로 관심을 받기 힘들어요. 관객들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연극의 위상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PA020)

3) 연극 교육과 진로에서 매체 기반 활동 영역으로의 진출 선호 증가

■ 연극 교육에서 이론과 양식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실용적 제작 실습이 강조되고 있음

■ 연극영화과 등 연극 관련 전통적인 학과가 줄어들고, 방송 및 매체 연기 중심의 학과가 늘어나고 있음

- 젊은 세대는 연극을 매체 플랫폼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예전엔 구조주의 연극이나 세계적인 양식을 배우면서 연극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 때 연극을 하며 새롭게 배운 개념들에 충격받고, 무대 위에서 구현해내는 희열을 느꼈죠.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그런 이론이나 양식에 관심이 없어요. 실용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작 실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PA018)

"연극영화과 같은 전통적인 학과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매체 연기를 가르치는 과가 늘어나고, 학생들은 연극보다는 매체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호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지만, 연극계에는 큰 타격이에요." (PA018)

"대학에서 연극을 배우는 학생들 중 90%는 매체로 가는 것만 생각해요. 연극을 진지하게 하려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PA019)

나. 생태계 이슈

제작 환경, 세대 간 단절, 경쟁력 약화 등으로
연극 생태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1) 열악한 제작, 공연 환경

■ 제작비 부족으로 배우의 사비로 제작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지인 대상 관람 요청 혹은 배우의 사비로 제작비 충당

■ 짧아진 제작 및 공연 기간으로 인해 작품의 완성도가 낮아졌다는 의견이 제시됨

"요즘 공연을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관객이에요. 전화를 돌려서 '공연 보러 와달라'고 부탁하죠. 관객이 부족하면 결국 내 돈으로 공연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 지원금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PA017)

"예전에는 작품을 몇 달씩 준비하고, 두세 달은 공연했어요. 어떤 작품은 1년 가까이 공연하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일주일, 보름이면 끝나요. 이렇게 빨리 끝나면 작품을 다듬을 시간도 없고, 완성도를 높일 기회도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연을 통해 점점 더 나아지는 걸 느꼈는데, 요즘엔 그런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PA017)

2) 세대 간 단절

■ 신진 - 중진 - 중장년(원로) 배우 간 단절로 인해 신진 배우들이 중진/중장년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중장년 배우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제시됨

> "젊은 배우들이 나이 든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려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어요. 연극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캐릭터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젊은 배우들끼리 모여서 공연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든 배우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PA018)

3) 연극의 경쟁력 약화

■ 연극이 점점 TV드라마처럼 변하면서 연극 고유의 예술적 특성과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연극이 문화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영화 및 드라마의 발전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예전에는 연극이 연극다웠어요. 무대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강렬함이 있었고, 연극만의 표현 방식과 미학이 존재했죠. 하지만 요즘 연극을 보면, 마치 TV 드라마를 무대에 옮겨놓은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연출을 추구하면서 연극의 색깔이 사라지고 있어요. [...] 연극이 점점 다른 매체를 따라가려다 보니, 정작 연극 본연의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PA019)
>
> "예전에는 연극이 문화의 중심에 있었고, 사람들이 연극을 보러 오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요. 영화와 드라마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연극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연극을 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PA020)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지역 연극제 활성화, 연금 도입, 형평성 있는
공공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필요

1) 연극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 청소년들에게 연극의 가치를 가르지는 교육 과정 필요

■ 지역 연극제와 축제를 활성화하여 연극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청소년들이 연극을 접하고, 연극을 통해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연극이 순수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연극이 이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요." (PA018)

"지역마다 특색 있는 연극 축제를 만들어 연극의 가치를 높여야 해요. 단순히 상금을 걸고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PA018)

2) 예술인 연금 제도 관련

■ 연극인의 안정적인 노후, 연극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술인 연금제도 도입 필요
- 현재는 생계 걱정으로 인해 연극을 직업으로 삼기 어려움

"연극인들도 나이가 들어서 최소한의 안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국가에서 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극인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연극계에도 지속 가능성이 생기고, 젊은 세대도 미래를 보고 버틸 수 있을 거예요." (PA017)

"예술인 연금이 있었다면 연극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기반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계 걱정 때문에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PA020)

3) 지원사업 관련

■ 지원제도 신청 과정이 복잡해서 창작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극인이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 큰 단체 위주의 지원 사업 수혜로 인해 작은 극단은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임. 형평성 있는 공공지원 필요

"요즘 지원금을 받으려면 서류 준비부터 해야 해요. 창작보다 서류 작업이 더 큰 일이 되는 거죠. 서류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연극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지고, 창작의 본질을 놓치는 것 같아요." (PA017)

"큰 단체들은 지원금이 많아 잘 만들 수 있지만, 작은 단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공공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현종, PA019)

[그룹2-2] 예술창작 지원 핵심 전문가(조력자)

1.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11:00 ~ 13: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3. 참석자 명단

[표 2-6] 참석자 명단 [그룹2-2] 예술창작 지원 핵심 전문가(조력자) : 무대 스태프, 드라마터그, 평론가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C	남	50대	30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4)	스태프	PA021	남	30대	10년
	비평, 드라마터그	PA022	여	40대	12년
	비평, 드라마터그	PA023	여	50대	36년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PA024	남	30대	1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분야 진입, 교육
- 세부 직군별 인력 현황
- 작업의 노동 시간과 대가, 삶의 질
- 전문인력 교육
- 세부 직군별 직업 범위와 역할, 팀구성 방식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환경 변화 : 기술 발전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작업 강도 및 처우
- 활동 무대 확장 현황
- 공정한 노동 권리 보장
- 공정 보상 : 저작권 보호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제한적인 분야 진입 경로, 세부 직군에 대한 불명확한 업무 영역 정의

1) 분야 진입 관련

(1) 무대 감독

■ 무대 크루는 구인 공고가 많아서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음

■ 무대 감독은 신뢰와 경력이 필수지만, 공식적 교육이 부재하여 인맥과 추천이 거의 유일한 진입 경로임

"무대 일이라고 넓게 보면 진입 장벽이 낮아요 크루 같은 경우는 팔다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구인 공고도 많고, 사람이 귀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무대 감독은 달라요 이건 신뢰가 중요해서, 경험이 없으면 시작할 수도 없어요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하는데, 정작 신입한테는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죠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보통은 연출이나 제작 쪽에서 '누구 소개 좀 해줘' 해서 추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이나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PA021)

(2)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 모션그래픽 디자인 분야는 시장이 좁고 진입이 어려워, 인맥과 추천이 거의 유일한 작업 기회 확보 수단임

■ SNS에 업로드한 작업물을 통해 분야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음

"공연 영상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되게 좁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진입 자체가 힘들어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도 사실상 아무도 안 봐요 대부분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만 작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명 감독이 '나 아는 영상 디자이너 있는데 같이 할래?' 이렇게 연결되거나, 연출가가 SNS에서 괜찮은 작업을 한 사람을 찾아서 연락하는 방식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작업을 해도, 인맥이 없으면 일할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PA024)

(3) 평론가

■ 연극 평론에는 공식적인 등단 시스템이 없으며 대부분 인맥과 추천을 통해 분야에 진입하고 있음

■ 젊은 비평가상 수상 혹은 국립극장 공모 프로그램 진입이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연극 평론이라는 직군이 등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문학계에는 문예지 등단 같은 게 있지만, 연극 평론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 젊은 비평가상을 받거나 국립극장에서 운영하는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진입하는 방법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평론가는 인맥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잡지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기존에 활동하는 평론가들이 추천해줘야 비로소 글을 쓸 기회를 얻을 수 있죠" (PA023)

2) 연극 분야 내 드라마터그 역할의 불명확성

■ 연극 분야에서 드라마터그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임

■ 극작가, 자료 조사자, 연출 보조 등 각 프로덕션마다 드라마터그의 역할이 다르게 인식되고 있어 일의 범위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드라마터그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연극계 안에서도 역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프로덕션에서는 드라마터그가 극작가랑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자료 조사해주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어떤 곳에서는 연출 보조 같은 역할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다 다르고, 역할이 고정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PA022)

나. 생태계 이슈

직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부족, 필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 전문 교육 부족 등이 연극 생태계 내 창작 조력 전문가가 직면한 문제점으로 제기됨

1) 직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부재

■ 드라마터그 직무는 공식 직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직업으로 자리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공공조사 통계에서도 드라마터그 직무에 대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음
- 지원사업 수혜도 제한적

"최근 몇 년간 나왔던 예술 실태조사를 다 찾아봤는데, 드라마터그라는 직군이 아예 언급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 역할이 뭔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 지원에서조차 이 직군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통계에도 안 나오니까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드라마터그라는 직업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PA022)

2) 직무의 필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무대 감독은 극단 내에서 필수 직군으로 인식되지 않아, 예산 배정 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무대 감독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연출가가 직접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극단에서는 무대 감독 없이도 공연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무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섭외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예산이 빠듯하니까 연출이 직접 무대 감독 역할을 하거나, 극단 단원들이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무대 감독을 제대로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결국 예산을 짤 때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직업이 되어버렸죠" (PA021)

3) 전문 무대인력(영상·조명 등) 양성 체계 부족

■ 공연·영상 디자인 전공자는 조명·무대 협업 및 제작 시스템을 배울 기회가 부족해 공연계를 기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대학에서 공연·영상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어, 비전공자가 현장에서 배우며 진입하는 구조가 형성됨

> "공연 영상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공연계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연 영상은 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조명, 무대랑 협업해야 하고, 공연 제작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어요 대학교에서도 공연 영상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고, 현장에서는 비전공자들이 그냥 배우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면 전문성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PA024)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직군별 업무 영역 공식 인정, 균형있는 지원, 전문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1) 직무에 대한 공식 인정 및 지원 확대 필요

■ 직무가 공공조사 및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식 직무로 인정 필요

■ 작품 제작 시, 지원사업에서 고려되지 않는 직군은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느껴 해당 직군을 제외하고 작품을 제작하게 됨

"지금은 지원 사업에서도 드라마터그의 역할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창작 지원금을 받을 때 연출, 극작, 배우 사례비는 포함되는데, 드라마터그 사례비는 따로 책정되지 않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창작팀에서도 '그럼 우리 예산에서 따로 드라마터그 비용을 빼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비용이 부담되면 아예 드라마터그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드라마터그가 포함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PA022)

"무대 감독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무대 감독이 가장 먼저 빠지는 거죠 사실 무대 감독이 있으면 공연의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고, 사고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잘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공연 제작비를 지원할 때 무대 감독 비용이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도록 정책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PA021)

2) 직무별 균형있는 지원 필요

■ 공연 제작에는 수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되지만, 평론(비평)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균형있는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지금 공연 제작에는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의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비평 관련 지원금은 몇 백만 원 수준이에요 공연을 만들 때 비평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제작 지원과 비평 지원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 커요 비평 지원도 최소한 몇 천만 원 단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PA023)

3) 관련 교육 및 지원 확대 필요

■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공연 영상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영상 자체는 전공자가 많은데, 공연 영상은 너무 다른 영역이라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공연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명이나 무대와 협업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해요 지금은 그런 걸 배울 곳이 없어서, 다들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고 있어요" (PA024)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1. 구성

■ G1. 홍보·마케팅·온라인, G2. 공연장, G3. 축제감독, G4. 프로듀서, G5. 독립프로듀서의 5개의 소그룹으로 진행함

[표 2-7] 소그룹 구성 :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구분	일시	장소	참석 인원
G1. 홍보·마케팅·온라인	2024년 10월 30일(목), 10:30~12:30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분야 전문가 5인
G2. 공연장	2024년 11월 12일(화), 14:00 ~ 16: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분야 전문가 5인
G3. 축제감독	2024년 10월 18일(금), 09:40 ~ 11: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분야 전문가 5인
G4. 프로듀서	2024년 10월 31일(목), 17:00 ~ 19: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3실	분야 전문가 3인
G5. 독립프로듀서	2024년 9월 13일(금), 17:00 ~ 19: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3실	분야 전문가 2인

2. 소그룹별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 G1. 홍보·마케팅·온라인 : 공연 영상화, 온라인 플랫폼 등 기술을 활용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연관광 감소, 관객의 접근성 저하 등으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G2. 공연장 : 공연장 운영 한계와 기획극장 부족, 상업화로 인한 연극 생태계 위기 심화

■ G3. 축제감독 : 서울 중심의 운영 및 획일화된 연극제와 OTT의 성장으로 연극의 경쟁력 약화

■ G4. 프로듀서 : 제작비 상승 대비 공공부문 지원금 규모는 여전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양질의 연극 제작과 장기 공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G5. 독립프로듀서 : 독립 프로듀서는 개념 정의의 모호성, 대관·수익 구조, 공공지원 등의 문제로 창작과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생태계 이슈

■ G1. 홍보·마케팅·온라인 : 현재 연극 생태계는 열악한 관람 환경, 낮은 수익 구조, 제작 인프라 부족 등으로 자생이 어려운 상황

■ G3. 축제감독 : 연극제의 폐쇄적 운영 및 대중성 위주의 변질로 본연의 취지 훼손 및 문제 제기

■ G4. 프로듀서 : 대관 문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원부족으로 연극 제작과 지속적인 공연이 어려운 상황임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 G1. 홍보·마케팅·온라인 : 관객 개발 및 공연 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 지원사업이 악용되지 않도록 복합적인 대안 마련 필요
- G2. 공연장 :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극단 및 공연장별 맞춤형 지원과 직간접적 재정·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
- G3. 축제감독 : 연극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예산 중심 기획 및 단기 지원 구조의 개선 필요
- G4. 프로듀서 : 연극의 지속성을 위한 장기 공연, 레퍼토리 구축, 극단 운영 지원 필요
- G5. 독립프로듀서 : 극장 대관과 공연 지원은 창작성과 지속성을 고려해야 함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홍보·마케팅·온라인(티켓포함)

1. 일시

■ 2024년 10월 30일(목), 10:30 ~ 12:3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3. 참석자 명단

[표 2-8] 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홍보·마케팅·온라인(티켓포함)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C	남	50대	30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5)	홍보·마케팅	PA025	여	50대	27년
	홍보·마케팅	PA026	여	30대	10년
	홍보·마케팅	PA027	여	40대	16년
	티켓	PA028	남	40대	20년
	티켓	PA029	남	40대	3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홍보·마케팅 분야 진입
- 홍보·마케팅 분야 현황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연극 작품의 저작권
- 환경변화 : 기술 발전 및 기후 위기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연극 관객 모객
- 마니아 관객과 관극 문화
- 연극 분야 홍보마케팅 및 유통
- 연극 공연 영상화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공연 영상화, 온라인 플랫폼 등 기술을 활용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연관광 감소, 관객의 접근성 저하 등으로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 홍보·마케팅·유통 현황

■ 공연 홍보 및 유통을 위해 자체 OTT플랫폼, SNS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저비용으로 자체 제작이 가능한 쇼츠, 릴스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관객들의 반응도 좋은편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OO라이브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OOO의 작품이라든지 OO지역연극제관을 개설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가장 높은 건 현재 뮤지컬이고, 그 다음은 콩쿠르 형태의 영상입니다." (PA026)

"공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대한 홍보마케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SNS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홍보차원의 사회공헌 행사라든지, 그리고 영상화 사업의 온라인 극장 플랫폼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PA027)

"최근에는 쇼츠나 릴스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예산이 없어도 저희 직원들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OOO작품' 같은 공연은 저희 직원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기획해서 찍고 만드는데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업체에 맡긴 것보다 반응이나 조회수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PA027)

2) 기술 활용을 통한 유통 확대 관련

■ 현재 우리나라의 예술 콘텐츠는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더 잘 유통하기 위해서는 기술 활용을 통한 유통이 필요함

- 예술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확대를 위해 컬처테크 운영 중에 있음

■ 기존 마니아 관객 외에도 글로벌 관객 대상 유통 활성화를 통해 시장 확대 필요

"무용을 전공했지만 졸업하면서 예술 유통에 관심이 생겨 창업했고, 지금은 8년째 컬처테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예술을 잘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잘 유통하게 하려면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 잘 만들어진 작품이 기존의 매니아 관객뿐 아니라 글로벌 관객과 연결될 수 있어야 시장이 확장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연을 영상으로 보던 세대예요. NT라이브도 보고 자랐고, 과거에는 공연 레퍼런스를 찾기 위해 국회도서관까지 가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유통되는 흐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육기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자료 찾기 어려웠던 경험이 현재의 방향성에 영향을 줬죠" (PA026)

3) 공연관광 콘텐츠의 감소

■ 코로나19 이후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공연관광 콘텐츠가 크게 감소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연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연관광협회에 참여하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중에 있음

> " [...] 공연들이 재개가 되긴 했지만, '난타'나 '페인터즈' 같은 일부 공연을 제외하면 상설 공연은 거의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약 15~16개의 오픈런 공연이 한국 공연관광 콘텐츠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후에는 거의 다 중단되고 정말 몇 개만 공연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공연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저는 다시 한국공연관광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양한 공연관광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 거죠." (PA025)

4) 관객 유입·개발의 어려움 및 티켓 품앗이

■ 노후된 공연장 환경, 불편한 관람 조건이 일반 관객의 연극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대학로 내에 수많은 공연장이 있으나, 대부분 2-30년된 시설로 관객들이 관람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공연장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의견

■ 관객보다 연극인 중심의 티켓 품앗이 구조로 인해 외부 관객 유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연극을 보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컨디션이나 환경을 참으면서까지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저희 대학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200개 가까운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지만, 대부분 20~30년 된 시설 그대로입니다. 배우들은 그 환경이 익숙해서 공연을 보러 가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 불편함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죠. 지금 아시겠지만 품앗이를 하고 있잖아요. 배우들이 자기 공연할 때 오라고 하고, 나도 가서 만 원씩 내고. 근데 일반 관객들은 사실 그 품앗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죠. 관객을 위한 극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연극인들끼리의 장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PA029)

나. 생태계 이슈

현재 연극 생태계는 열악한 관람 환경, 낮은 수익 구조,
제작 인프라 부족 등으로 자생이 어려운 상황

1) 열악한 관람 환경

■ 노후된 극장 및 관람 환경이 관객 대상 연극에 대한 관람, 극장 방문 의향을 낮추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영화관의 경우, 소극장과 비슷한 규모임에도 소극장보다 더 편안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어 불편을 감수하며, 연극을 관람할 관객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연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관람환경이 열악해 공연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의견이 제시됨

"[...] 20년 동안 극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극장의 컨디션이. 네, 더 열악해졌죠. 왜냐하면 100석 미만의 소극장들에서 사람들은 영화관도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영화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극장 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없고 굉장히 비좁고 딱딱하고, 사실 거기에서 1시간 반, 2시간을 앉아서 공연을 보는 그 환경 자체가, 지금 관객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 그리고 왜 안 오는가 했을 때, 결국 극장 환경이 열악해서 관객이 오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PA025)

"대학 때랑 소극장 환경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가면 뭐 냄새나는 화장실에 불편하고, 좌석 불편하고. 저도 공연하는 사람으로 공연을 보고 싶지만 어떤 극장은 이제는 허리가 받쳐주지 않아서, '아 그 극장 가기 힘든데' 이런 얼굴이 먼저 찌푸려지는 거예요." (PA028)

2) 연극에 대한 낮은 관심도

■ 일부 연극의 경우, 연극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홍보를 해도 관객 유입이 없어, 홍보를 거의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공연 기획, 제작, 홍보 마케팅하는 회사 대표를 만났는데, 그 회사는 지금은 티켓 매니지먼트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 홍보 마케팅은 안 하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지원금 일부로 홍보를 했지만 일반 관객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보러 오는 사람만 왔다고 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뮤지컬도 예전처럼 홍보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뮤지컬 매니아층은 알아서 찾아오고 n회차 관람을 하기 때문에 굳이 광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은 홍보를 안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해도 안 오는 구조라는 거죠."(PA025)

3) 제작 시스템 및 인프라 부족

■ 공공지원, 행정 등은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나, 제작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공지원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민간에서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제작 시스템이나 아직도 극장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것이 가장 큰 간극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PA028)

4) 지원사업 없이 지속이 어려운 생태계 구조 관련

■ 지원사업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구조이며, 지원사업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 생계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하는 상황임

> "우리는 생태계 생태계하지만, 사실 우리는 생계 문제를 거론해야죠. 한 번도 생태계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순환이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생태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지원사업이 끊기면 그냥 생태계라는 말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PA028)

5) 연극 공연의 낮은 수익성 및 배분 구조

■ 현재의 연극 유통 구조로는 배우, 창작자 등이 큰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임. 공연 영상화를 통해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 [...], 단순 유통을 넘어서 수익이 창작자와 출연자에게 돌아가야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좋은 기술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권리관계 설정과 로열티 배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 SaaS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어요. 예술가들 중에 연 수입이 1,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공연 영상화를 통해 로열티가 지급되고 추가 수익이 생기도록 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한 예술가는 이를 통해 1,3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PA02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관객 개발 및 공연 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 지원사업이 악용되지 않도록 복합적인 대한 마련 필요

1) 관객 개발을 위한 지원 예산 확대 필요

■ 관객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지원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관객 개발을 위해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함

> "OO지역과 야간 공연 관람권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덕분에 평일 저녁에 관객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5분의 1로 깎여서 예전처럼 넉넉하게 운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PA029)

2) 공연 영상 유통 확대 관련

■ 공연 영상에 자막, 해석 등을 더해 해외 교육기관에 활용하면 한국 문화 교육 및 신규 관객 개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연 영상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잘 만든 영상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어요. 특히 요즘은 영상화 비용을 넣지 않는 팀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영상 제작이 활발한데, 그걸 국내 유통에만 쓰지 말고 자막이나 문화적 해석을 덧붙이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OO기관이나 문화원 등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자료로 드라마 외에 역사·인문적 배경이 담긴 공연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막 등으로 잘 정리된 영상이 있다면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이나 아카데미에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 자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청소년이나 해외 관객이라는 신규 관객을 개발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PA026)

3) 지원사업이 악용되지 않는 구조 마련 필요

■ 극장 지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나, 극장 지원이 건물주의 월세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운영 부담을 키우게 된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됨

■ 지원사업이 악용되지 않도록 복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서울 창작극장이라는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 있는 극장들에게 월세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극장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업에 선정되면 건물주가 그걸 알고 월세를 인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6년도에 서울시가 직접 운영했을 때는 건물주에게 직접 입금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건 나라에서 주는 돈이구나'라고 인식하면서 그 다음 해에 월세를 두 배로 올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극장을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극장 운영이 더 힘들어집니다. 지원이 선의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이 되는 상황도 있는 만큼, 복합적인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PA029)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공연장

1.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14:00 ~ 16: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3. 참석자 명단

[표 2-8] 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공연장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C	남	50대	30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5)	공연장(공공)	PA030	남	50대	26년
	공연장	PA031	여	50대	24년
	공연장	PA032	남	40대	20년
	공연장	PA033	남	40대	23년
	공연장	PA034	남	40대	2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공연장 현황
- 지역 공연 환경
- 지역 내 작품 유통과 관객 개발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환경변화 : 기술 발전 및 기후 위기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대학로 연극 무대 축소 우려
- 창작자와 공연장 접근성 제고 방안
- 공연장의 창작자 니즈 소통 제고 방안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및 생태계 이슈

공연장 운영 한계와 기획극장 부족, 상업화로 인한 연극 생태계 위기 심화

1) 공연장 운영 관련

(1) 공공극장

■ 공공극장은 국가 정책에 따라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짐

■ 독자적인 운영 철학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공공극장은 사실 국가 정책에 기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개년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면, 이에 따라 극장 운영 방향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공공극장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결정되며, 이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정 극장장의 운영 철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렵죠." (PA030)

(2) 민간극장

■ 대학로 소극장은 높은 임대료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대학로 소극장 운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임대료가 너무 비싸졌어요. 지금 대학로에서 극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웬만한 극장은 월 임대료가 천만 원 정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건물주들도 어느 정도 임대료를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정상화되면서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죠. 게다가 전기세나 관리비까지 더하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PA032)

2) 수도권 대비 일부 지역의 공연장 공급 과잉 및 공연 단체 부족 문제

■ 일부 지방의 경우, 서울과 비교하여 극장의 공급이 많지만 공연 단체와 콘텐츠가 부족해 대관이 저조한 상황

> "서울은 극장이 부족해서 대관 경쟁이 심하지만, OO 같은 지방 도시는 정반대입니다. 공연 단체 수보다 극장이 많아요. OO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극장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시에서 대학로처럼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여러 극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체가 부족하니까 극장들이 오히려 대관이 어렵고, 공연할 콘텐츠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PA032)

3) 기획극장의 부족

■ 민간극장의 경우 대관료 수입으로 극장 운영 및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로 인해 창작자들과 함께 극장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획극장이 부족해짐

"제가 운영하는 공연장은 대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극장이 단순히 대관료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극장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저희 같은 민간극장도 기획을 하고 자체적인 색깔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관료 수익만으로 극장의 운영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공연을 단순히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 창작자들과 함께 극장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관만으로는 극장의 색깔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PA034)

4) 상업 공연 중심의 대관 경향 강화

■ 현재 대학로는 상업 공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상업화된 극장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 예술성과 실험성을 중요시하는 순수 연극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대학로의 분위기가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순수 연극이 공연될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상업적인 공연이 중심이 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요. [...] 예술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PA031)

"대학로에는 순수예술을 하는 독립예술단체들이 많지만, 정작 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적절한 극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업화된 극장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예술성과 실험성이 보장되는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죠. 공공극장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대관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PA030)

나.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극단 및 공연장별 맞춤형 지원과 직간접적 재정·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

1) 연극 단체 및 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연극 단체와 공연장은 성격과 운영 방식이 다양하므로, 유형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연극 단체들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티켓파워가 있는 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인 연극 제작사도 있고, 전통적인 연극 단체들도 있고, 사회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독립예술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각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극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PA030)

"극장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극장은 상업 공연에 적합하고, 어떤 극장은 실험적인 연극에 적합해요. 하지만 현재 지원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장의 특성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PA031)

"극장의 특성에 따라 지원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관 중심 극장과 기획 중심 극장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극장의 유형과 운영 방식에 맞춘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PA034)

2)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직간접적 재정 지원 필요

■ 공연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함

- 전기세와 같은 공공요금 감면
- 공연장 창업을 위한 창업 지원 제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공연장은 그런 혜택이 없어요. 사실 연극 극장도 문화예술 공간인데,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이라도 감면이 된다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PA032)

"새롭게 극장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운영 경험도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요. 극장을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나 창업 지원 제도가 있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극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PA033)

"공연장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극장도 자체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장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창작자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A034)

3) 공연장의 기획/창작 환경 조성 필요

■ 공공극장과 민간극장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창작 환경 조성과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공공극장은 단순한 대관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작자들과 협력하고, 극장의 정체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극장 운영이 지속 가능해지고,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창작 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A030)

"민간극장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공간 지원이 아니라,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PA031)

4) 공연장 운영자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필요

■ 극장 운영 초기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정보와 계약 관련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제가 처음 극장을 운영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정보 부족이었어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시행착오를 덜 겪었을 겁니다. 새롭게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PA033)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축제감독

1. 일시

■ 2024년 10월 18일(금), 09:40 ~ 11: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3. 참석자 명단

[표 2-9] 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축제감독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C	남	50대	30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5)	감독	PA035	남	40대	25년
	감독	PA036	남	50대	38년
	감독	PA037	남	50대	30년
	감독	PA038	여	40대	22년
	감독	PA039(개별인터뷰)	여	40대	23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연극 분야 첫 경험
- 축제 기획 인력풀 및 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
- 창작자 커리어
- 분야 진입, 교육
- 창작자의 노동 대가와 삶의 질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환경변화 : 기술 발전 및 기후 위기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연극계 축제 현황
- 축제 관객 모객
- 지역소멸 위기 대응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서울 중심의 운영 및 획일화된 연극제와
OTT의 성장으로 연극의 경쟁력 약화

1) 서울 중심으로 활성화된 연극제

■ 연극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음

■ 지역 연극제는 예산 부족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임

> " [...] 그런데 지역에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축제한다고 해도 한 1천만 원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단체들은 기본적인 운영조차 어렵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예술 관련 기금이나 기업 후원 같은 것들이 있지만, 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연극제는 서울 중심으로 굴러가고, 지역 연극제는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PA035)

2) 획일화된 연극제 관련

■ 연극제별로 특성이 차별화되지 않고 대부분 동일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술축제와 지역 브랜드 축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대한민국 연극제가 있고, 지역별 연극제들이 있지만, 대부분 축제 방식이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제마다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름만 다르게 붙여진 거죠. 예술 축제와 지역 브랜드 축제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요." (PA037)

3) OTT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의 영향으로 연극의 경쟁력 약화 우려

■ OTT 플랫폼의 발전으로 연극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관객이 극장을 찾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됨

> "OTT들이 워낙 발전해서, 극장을 찾을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고퀄리티의 콘텐츠가 나오는데, 관객들은 연극을 보러 가는 수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연극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PA038)

나. 생태계 이슈

연극제의 폐쇄적 운영 및 대중성 위주의 변질로 본연의 취지 훼손 문제 제기

1) 예술인 위주로 운영되는 연극제

■ 연극제가 예술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시민의 참여와 일반 관객의 유입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가 형성됨

"춘천인형극제가 시작될 때만 해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지역 축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전국에서 인형극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끼리의 축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점점 멀어지고, 공연은 공연인들끼리 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깨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PA036)

"대한민국 연극제라든가 물론 전국연극제에서 넘어왔지만 사실은 이게 그들만의 축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연극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축제하고, 결국은 일반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제를 통해서 관객 유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연극제는 연극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든 지역이든 결국 연극제가 폐쇄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PA035)

2) 예술제 본연의 취지 훼손

■ 수익이 나지 않는 연극제의 특성상 지자체의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예술적 가치보다는 대중성 위주로 운영되며 일반적인 지역 축제로 변질되고 있음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트로트 가수를 부르는 데는 예산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익이 안 나니까'라는 이유로 지원이 미비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예술제인데, 결국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지역의 큰 행사처럼 변질되는 겁니다. 연극제라고 해놓고 트로트 공연이 더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극제인지, 그냥 지역 축제인지 모를 정도가 되는 거죠." (PA035)

3) 연극 관람에 대한 관객의 인식 변화

■ 관객들은 연극을 일회성 이벤트처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반면, 연극 생태계는 여전히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요즘 관객들은 연극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처럼 소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극장에 와서 앉아서 보는 형태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극계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PA038)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연극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예산 중심 기획 및 단기 지원 구조의 개선 필요

1) 연극제 예산 관련

■ 예술제 목표보다 예산에 맞춰 축제를 기획하면서 연극계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예산에 맞춰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아닌, 예술적 목표를 정한 후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퀄리티를 높이려면 돈에 맞춰서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목표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예산을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라'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저렴한 공연 위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연극계 전체적으로 질적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PA035)

2) 지속 가능한 연극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구조 개선 필요

■ 단기 행사 중심의 지원체계는 연극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 지원 구조 마련이 요구됨

"현재의 지원 체계는 단기적인 행사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극 생태계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OO문화도시 사업이 예비 선정까지 갔지만, 이후 예산 확보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PA039)

3) 연극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운영 구조의 개선 필요

■ 연극제가 연극인 중심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

"축제를 연극인들끼리의 이벤트로 끝낼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러려면 교육 프로그램이든 체험 프로그램이든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대부분 축제들은 한 번 하고 끝나니까 의미가 희미해지는 거죠." (PA037)

4) 예술의 사회적 역할 관련

■ 공공지원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서 축제를 지원할 때,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하지만 예술은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거든요. 공연예술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해요.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 따지지 않고, 예술이 가진 가치를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PA039)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프로듀서

1.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17:00 ~ 19: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3실

3. 참석자 명단

[표 2-10] 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프로듀서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C	남	50대	30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3)	프로듀서	PA040	여	40대	21년
	프로듀서	PA041	남	40대	20년
	프로듀서	PA042	남	40대	18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분야 진입 경로
- 창작자의 노동 대가와 삶의 질
- 전문 인력풀 및 교육 현황
- 창작자 커리어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작품의 저작권
- 환경변화 : 기술 발전 및 기후 위기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관객 모객
- 마니아 관객과 관극 문화
- 홍보마케팅 및 유통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제작비 상승 대비 공공부문 지원금 규모는 여전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양질의 연극 제작과 장기 공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1) 인건비/제작비 상승 관련

■ 연극의 인건비와 제작비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티켓 매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제작이 어려운 상황임

■ 지역 문화재단의 연극 단체 지원 예산 규모는 거의 그대로인 반면, 제작비 상승으로 인해 기획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유지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임

■ 공공 지원금의 경우 1편당 뮤지컬 대비 연극 지원 기준이 낮은 편이며, 지원 예산이 제작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연극 매출은 더 이상 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대학로 전반에 다 뮤지컬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뮤지컬을 기준으로 상향이 됐고 [...] 제작비는 연극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는데 매출은 그만큼 가지를 못하니까 국가 지원을 받지 않은 상업단체가 존속하려면 스타 캐스팅을 하거나, 이렇게 계속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PA040)

"재단 쪽도 사실 기본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게 유사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그런 제작비 상승 자체나 이런 것들이 기획 사업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사업들에 대해서 양적으로 늘리는 게 정말 힘든 상황들이고, 질적으로 유지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박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 들고요" (PA041)

"창작산실만 봐도 연극은 1억, 2억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창작 뮤지컬은 2억 5천이에요. 예산부터 다르고. 연극은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어요. 제작비는 올라가는데 지원이 따라오지 않으니, 연극을 제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PA042)

2) 대학로 내 장기 공연 가능 연극 제작팀 감소

■ 현재 대학로는 장기 공연이 가능한 연극 제작팀이 거의 사라지고 있음

"지금 대학로에 오픈런이라고 하는 데이트 연극을 제외하고, OOOO이 만약에 사라지면 진짜 연극하는 팀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소규모 극단들은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 연극을 올릴 수 있는 팀들은 정말 사라지고 있어요" (PA042)

나. 생태계 이슈

대관 문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원부족으로
연극 제작과 지속적인 공연이 어려운 상황임

1) 티켓 예매처의 극장 운영권 확대에 따라 대관에 어려움 증가

■ 대학로의 극장 운영이 특정 예매처에 의해 좌우되면서 연극 제작사에서 극장 대관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대학로 같은 경우에 보면 주요 예매처들이 지금 대부분의 소위 말해서 쓸만한 극장들의 운영권을 다 가지고 가고 있고 [...]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밀려난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라인업이 있어도 공연장이 없는 이 현실이 하나가 있고 [...]"(PA040)

2) 민간극장의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 민간기업 운영 극장, 대극장, 국립계열 기관 등 안정적인 기관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 민간극장의 경우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1~2년 단위 계약직 채용으로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의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극장들이나, 아니면 이제 규모가 있는 대극장들, 국립계열의 기관 같은 곳이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 되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계속 이동하는 상황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계약직들이 매년 바뀌고, 1~2년 단위로 채용을 해야 해서 새로운 인력을 교육하고 적응시키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PA041)

3) 연극분야 지원사업 관련

(1) 실질적으로 연극인/단체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부족 체감

■ 참여 인터뷰이 중 일부는 연극 지원사업의 경우 기회가 적고 제약이 많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부족하며, 도움을 주는 사업의 경우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연극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제약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지원을 받아도 공연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에요" (PA042)

(2) 연극 지원기준 모호성(상업성 vs 비상업성)

■ 공공지원 정책에서 '상업'과 '비상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함

■ 상업 극단도 비상업 극단과 하는 일은 동일하나 '상업' 극단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임

"상업과 순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혹은 상업과 비상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연극이라는 장르는 순수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저만 보면 OOOO은 상업예술, 즉 상업연극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 제가 봤을 때는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PA040)

(3) 레퍼토리 공연 지원 부족

■ 신작 중심의 지원 체계로 인해 지속적 공연과 만들어진 공연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레퍼토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창작 공연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업을 삼고 있는 프로덕션이라든지 극단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연도 계속 갈 수 있는 레퍼토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금의 지원 체계는 신작 중심이라 지속적인 공연을 이어 나가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PA041)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연극의 지속성을 위한 장기 공연, 레퍼토리 구축, 극단 운영 지원 필요

1) 장기 공연을 위한 개선 방안 관련

■ 연극의 지속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공연, 레퍼토리 지원, 장기 대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공공극장은 2주 정도 대관 가능
- 하나의 공연을 위해 장기간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 모색 필요
-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한 공연당 2개월 이상 대관이 필요하며, 단기 대관으로는 극단 유지가 어려움

"연극이 자생력을 키우려면 지원금을 받아서 씨를 뿌려서 이걸 키워서 그 극단의 레퍼토리로 만들어서 그 극단이 이 레퍼토리로 먹고 살 수 있어야 자생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의 지원 방향 자체가 3천만 원 주고 그냥 대관도 공공극장 가면 2주밖에 못 하고, 2주 동안 3천만 원 알아서 잘 써. 그렇게 해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원금도 사라지고 그냥 그 작업을 하던 사람들의 작업과 작품도 사라지고" (PA040)

"연극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비상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취약하기 때문에, 재공연과 레퍼토리 지원이 필요해요. 장기적으로 극단들이 하나의 공연을 오래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공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PA041)

"대학로 주요 극장들이 장기 대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한 팀에게라도 2달 이상 대관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연이 흥행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죠. 지금처럼 단기 대관으로는 공연을 올려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 실질적으로 극단들이 공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관 지원이나 장기 레퍼토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PA042)

2) 창작자 중심의 지원 체계 개선 필요

■ 연극 지원 체계가 창작자 중심에 편중되어 있어, 극단 운영과 장기 공연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함

"지원 체계가 너무 창작자 중심으로만 가 있어요. 물론 신작 창작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극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연과 장기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도 필요하고요" (PA041)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독립프로듀서

1. 일시

■ 2024년 9월 13일(금), 17:00 ~ 19: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3실

3. 참석자 명단

[표 2-11] 참석자 명단 [그룹3] 유통, 홍보 마케팅 전문가 : 독립프로듀서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C	남	50대	30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2)	독립프로듀서	PA043	여	50대	25년
	독립프로듀서	PA044	여	40대	19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분야 진입, 교육
- 작업 범위와 역할, 팀 구성 방식
- 전문인력 교육
- 작업의 노동 시간과 대가, 삶의 질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환경변화 : 기술 발전 및 기후 위기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독립프로듀서 이슈
- 작업 강도
- 공정한 노동 권리 보장
- 공정 보상 : 저작권 보호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및 생태계 이슈

독립 프로듀서 개념 정의의 모호성,
대관·수익 구조, 공공지원 등의 문제로 창작과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 독립 프로듀서에 대한 정의

■ 현재 연극 분야 내 프로듀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프로듀서들이 '독립 프로듀서'로 불리며 구분되는 현상이 어색하게 자리 잡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공 단체에 소속된 프로듀서도 독립 프로듀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듀서라는 정의가 한국에서는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프로듀서는 일단 다 독립 프로듀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관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기획팀의 직원들마저도 다 PD라는 호칭을 쓰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처럼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독립 PD로 불려지는 것 같은데. [...] 지금 프로듀서라는 명칭이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연의 원래 PD들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독립 PD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 저한테 독립 프로듀서, 독립 프로듀서 그러면 독립과 프로듀서가 이게 붙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PA043)

2) 예술성과 수익 창출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민

■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프로듀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음

■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흥행이 보장된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창작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하게 됨

"좋은 공연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게 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공연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대학로에서 지금 흥행하고 있는 공연들을 그래도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공연은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제 기준으로만 하니까. 속된 말로 국립 라인업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이거는 너처럼 혼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니라 어디서 라인업 잘 세워야 되는 그런 데서나 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돈을 벌어라,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히려 저한테, 그만 예술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죠." (PA043)

3) 대관 관련

■ 대학로 극장 대관은 건물주와 제작사 간의 친밀한 관계와 대기업 자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 작품의 흥행성과 스타 캐스팅 여부가 대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연극 제작에 극장 대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극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작품을 지속할 수 없음

"저는 대학로에 들어올 생각을 아예 못해요. [...] 근데 어쨌든 지금 대학로는 건물주와 제작사 간의 그런 친밀한 관계 유지가 또 되게 대단한 좌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술 영업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골프도 같이 치러 다니고, 이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 제작자들은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심각하게 저는 남성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그리고 대기업 자본을 갖고서 이제 연간으로 대관을 해놓는 제작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PA043)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관을 신청하면 '누구 나와요?'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스타 캐스팅이 되면 대관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결국엔 연극계에서도 흥행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 극장을, 어떤 극장을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확보하느냐가 수익의 가장 큰 연결 구조인데, 극장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이상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연을 올려도 그다음 단계가 없고, 수익이 날 수도 없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새로 만들기만 하고, 힘만 들고, 쭉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PA044)

4) 지원사업 수혜 관련

■ 공공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독립 프로듀서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저는 OO문화재단 작품 지원을 작년에 처음 받았어요.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또 받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원금이 특정 단체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받기가 쉽지 않아요. 6년 차쯤 되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받게 된 거죠. 근데 진짜 6년 동안 계속 공연을 하면서도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았던 걸 생각하면, 이게 초반에는 지원받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PA043)

나.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극장 대관과 공연 지원은 창작성과 지속성을 고려해야 함

1) 대관 시스템 개선 필요

■ 극장 대관은 흥행성보다 창작 중심 공연의 비율 고려가 필요함

■ 공공극장도 다양성을 높이는 창작 중심 민간 공연 단체에 개방될 필요가 있음

"대관 심사를 하는 극장들에서 흥행성보다 창작 중심 공연을 고려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대형 제작사 위주로 대관이 진행되면, 독립 프로듀서들이 창작 공연을 올릴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공공극장이 있는데, 그 공공극장들이 정작 상업 공연 단체에는 대관을 안 해주는 상황이니까. 근데 민간 상업 공연 단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공연은 창작 중심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작품들도 있는데, 그런 공연까지 배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PA043)

2) 초연에 집중된 지원사업 개선 필요

■ 공연 초연 지원 프로그램은 있지만, 공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공연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공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필요

"처음 공연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공연이나 투어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초연을 했는데 반응이 좋고 가능성이 있는 공연이면, 그걸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PA044)

[그룹4] 관람객

1. 구성

■ G1. 마니아 관객 및 분야 전문가, G2. 마니아 관객의 2개의 소그룹으로 진행함

[표 2-12] 소그룹 구성 : [그룹4] 관람객

구분	일시	장소	참석 인원
G1. 마니아 관객 및 분야 전문가	2024년 11월 26일(화), 15:00 ~ 17: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분야 전문가 5인
G2. 마니아 관객	2024년 11월 12일(화), 17:00 ~ 18:3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분야 전문가 3인

2. 소그룹별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 G1. 마니아 관객 및 분야 전문가 : 마니아 관객들은 SNS를 통해 입문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할인 방식의 축소로 관람료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 G2. 마니아 관객 : 마니아 관객 중심 소비, 배우 의존, 낮은 경쟁력으로 대중 확산이 어려움

나. 생태계 이슈

■ G1. 마니아 관객 및 분야 전문가 : 티켓 가격 변동성, 과도한 공연 일정, 홍보 및 정보 부족 등이 생태계 이슈로 제시됨

■ G2. 마니아 관객 : 관람 환경, 티켓 가격, 작품의 다양성 및 홍보 부족 등이 관객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기됨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 G1. 마니아 관객 및 분야 전문가 : 티켓 정책 개선, 홍보 강화를 통해 관객 유입 및 신뢰도를 높여야 함

■ G2. 마니아 관객 : 경직된 연극 관람 문화, 소극장 연극의 분산된 예매 시스템, 정보 부족 등에 대해 개선 필요

[그룹4] 관람객 : 마니아 관객 및 분야 전문가

1.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15:00 ~ 17: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3. 참석자 명단

[표 2-13] 참석자 명단 [그룹4] 관람객 : 마니아 관객 및 분야 전문가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5)	마니아 관객	PA045	여	20대	5년
	분야 전문가	PA046	여	40대	분야 : 10년 / 관객 : 24년
	마니아 관객	PA047	여	30대	12년
	마니아 관객	PA048	여	20대	10년
	분야 전문가	PA049	남	50대	분야 : 30년 / 관객 : 24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분야 진입 및 관람 현황
- 마니아 관객 및 관람 문화
- 관람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환경변화 : 기술 발전 및 기후 위기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열악한 관람 환경
- 창작 주체와의 소통
- 작품 리뷰
- 유료 관객 비율
- 공연 정보 습득 및 소통 매체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마니아 관객들은 SNS를 통해 입문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할인 방식의 축소로 관람료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1) 마니아 관객이 된 계기

■ SNS에서 독특한 연극 관련 글을 접한 후 호기심을 느껴 관람한 것이 계기가 됨

■ 연극의 현장감에 빠져 마니아 관객이 되었음

> "저는 이제 현재는 X로 바뀐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그때는 트위터였는데 그 어플에서 이제 어떤 연극이 한 큰 방인데 그 안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합쳐졌다가 나눠졌다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독특한 작품이 있다, 라는 글을 보고 이제 어 저게 뭐지?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가서 봤다가 처음 그 연극의 현장감에 좀 빠져가지고 그 뒤로부터 연극을 좀 좋아하기 시작했던 거 같고요." (PA045)

2) 연극 선택 기준

■ 연극을 선택할 때 배우 중심에서 연출가와 작가 중심으로 기준이 변화함

> "처음 연극을 보기 시작했을 때는 특정 배우를 보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 중에서도 재미있는 작품과 아닌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연출이나 작가를 먼저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DAC 아티스트'로 선정된 연출가나 작가들의 작품을 자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PA048)

3) 티켓 예매 방법

■ 티켓 예매 시 할인 정보를 적극 활용해 예매하고 있음

- 프리뷰 할인(40~50% 할인)
- 국립극단, 두산아트센터 등 패키지 예매
-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유료회원 할인 등

"저는 공연 언제부터 봤나 생각해 봤더니 대학교 1학년 때? 2001년부터 공연을 보기 시작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거는 2012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 이제는 할인 정보를 잘 찾아서 이용하고 있어요. 프리뷰 할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40~50%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할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고 싶은 공연을 예매하는 편이에요." (PA046)

"저는 2006년에 처음으로 공연을 보기 시작하면서, 뮤지컬부터 보기 시작해서 점차 연극도 보고 국악도 보고 클래식도 보고 하는 식으로 점점 다양한 장르를 즐기게 됐어요. [...] 연극 같은 경우는 국립극단, 두산아트센터 같은 곳에서 패키지를 예매하는 편이에요. 국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4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두산아트센터 패키지 예매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좋더라고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도 유료회원으로 가입해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요." (PA047)

4) 티켓 할인 축소 관련

■ 연극 관람에 한 달 평균 10편 내외 약 30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 학생 할인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대학생 할인 제도는 많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한 달에 보는 횟수는 사실 학생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못 볼 때는 한 달에 한두 편 정도 볼 때도 있고 많이 볼 때는 열 편 혹은 열다섯 편, 스무 편까지도 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편차가 조금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열 번 내외 정도는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거 같고요.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3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학생 할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대학생은 할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좀 많아서 조금 아쉬워요." (PA045)

나. 생태계 이슈

티켓 가격 변동성, 과도한 공연 일정,
홍보 및 정보 부족 등이 생태계 이슈로 제시됨

1) 티켓 가격 관련

■ 관람이 간절한 관객은 초반 비싼 정가로 예매하고 있지만 이후 40~50% 할인이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됨

- 간절한 사람과 간절하지 않은 사람 간 가격 정책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티켓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관객들은 정가를 신뢰하지 않고 할인만 기다리게 되어, 극단 운영 및 연극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시됨

"앞자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간절한 관객들은 어쩔 수 없이 제일 비싼 정가를 주고 예매하는데, 결국에는 그 돈을 주고 볼만한 사람들이 그 극장에 객석 수만큼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점점 한 티켓 다 팔고 나서 이제 조기예매 할인이 끝나면 그 뒤로 막 40%, 50% 이렇게 할인을 풀어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간절한 사람들만 돈을 더 많이 어쩔 수 없이 내게 되고, 이제 별로 간절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다가 할인이 풀리면 보고 아니면 말고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 정가를 싸게 잡았더라면 좀 더 처음부터 예매할 사람이 많을 건데, 굳이 그렇게 정가를 올리고 가격을 그런 식으로 갈라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PA045)

"요즘 연극계에서 티켓 가격을 보면 '시가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어떤 날은 정가로 팔리는데, 어떤 날은 50%씩 할인해서 팔리기도 해요. 결국 초반에 비싼 돈을 주고 예매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가를 믿지 않게 되고, 할인을 기다렸다가 예매하는 패턴이 생겼어요. 그러면 극단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연극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PA049)

2) 과도한 공연 일정으로 인한 작품 퀄리티 저하

■ 과도한 공연 일정은 배우들의 연기가 기계적으로 변하며, 감정 전달이 약해지고, 관객의 감동도 감소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어떤 극단은 하루에 3회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배우들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대사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원래 연극은 순간순간의 감정을 살려야 하는데, 너무 많은 횟수를 하다 보면 배우들도 지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연기가 기계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관객 입장에서도 감동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PA046)

3) 홍보 및 정보제공 채널 부재

■ 공연에 대한 사전 홍보가 없어, 미리 예매할 수 없음

■ 짧은 공연 기간으로 인해 관람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음

■ 공연 관련 자료, 출연 배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저희 관객들끼리 하는 말이 '제발 연극인들 티켓 오픈 전에 알려달라'예요.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리 예매해서 일정을 맞춰서 보러 가고 싶은데, 정작 연극 홍보는 공연 시작하고 나서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미 일정이 차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연극은 공연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놓치면 끝이에요. 뮤지컬처럼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예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PA047)

"공연을 보고 나면 그 배우가 누구였는지 다시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연극은 공연이 끝난 후에 배우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뮤지컬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연극은 자료가 없어서 다시 보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요. 플레이디비 같은 사이트도 요즘은 연극 정보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공연을 본 후에도 배우를 다시 찾기 어렵더라고요." (PA048)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티켓 정책 개선, 홍보 강화를 통해 관객 유입 및 신뢰도를 높여야 함

1) 안정적인 티켓 가격 정책 마련

■ 조기 예매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인해 관객들은 할인 시점을 기다리게 되고, 이는 초반 예매 저하, 티켓 가격 신뢰도 하락을 초래함

■ 티켓 가격은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일정한 할인율을 유지해야 함

■ 패키지 예매 등의 방식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타켓 예매 구조로 개선할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기 예매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매한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정가를 너무 높이지 말거나, 아니면 조기 예매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일찍 구매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할인할 때만 사게 되고, 결국 초반 예매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PA045)

"공연이 끝날 때쯤 되면 당일 할인이나 타임세일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처음 정가를 주고 예매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필요하면 일정한 할인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큰 폭으로 할인하면 정가의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할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매 패턴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PA047)

"저는 기본적으로 패키지 예매를 해요. 국립극단, LG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패키지 예매를 해두면 가격도 저렴하고, 일정도 미리 맞출 수 있어요. 극단들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관객들이 미리 예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마지막에 대량 할인을 푸는 방식은 관객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요. 처음부터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PA049)

2) 티켓 할인 제도 관련

■ 대학생 전용 할인 플랫폼 및 청년 대상 지원 확대 필요

■ VIP 마일리지, 관객 패스 등과 같은 혜택 도입하여 관객 유입 필요

- 연극 관람 활성화를 위한 보상 시스템 마련 중요

"학생 할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대학생 할인을 다시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켓 같은 대학생 전용 할인 플랫폼을 더 키우면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공연을 보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연극은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는 장르라서 학생 할인이나 청년 대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PA045)

"뮤지컬처럼 연극도 VIP 관객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단골 관객들이 꾸준히 연극을 볼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극계에서도 관객층을 유지하려면 이런 식의 보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PA046)

"연극계에서도 예술인 패스처럼 '관객 패스'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업이 기자라서 예술인 패스를 받을 수 없지만, 연극을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있었으면 해요. 서울연극협회나 한국연극협회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직 반영된 게 없어요. 예술 관람을 활성화하려면 관객에게도 일정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PA049)

3) 연극 공연 홍보 및 정보제공 채널 강화

- SNS를 통한 할인 정보 제공, 배우 인터뷰, 공연 자료 공유 등을 통해 관객 유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연극 배우 및 창작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 필요
- 제작사에서 마케팅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공공차원에서 연극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플랫폼 마련 필요

"연극도 이제 SNS 활용을 잘해야 해요. 할인 정보도 잘 정리해서 제공하고, 배우 인터뷰나 제작 과정 공유 같은 것도 하면 관객 유입이 더 쉬워질 거예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연극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뭔가 자료나 영상 같은 게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PA046)

"배우나 창작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북을 구매하지 않으면 연극 배우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인 정보라도 공연 후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된 사이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PA048)

"공연 홍보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극단이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예산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연극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연극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으면 관객들도 찾기 쉬울 거예요." (PA048)

[그룹4] 관람객 : 마니아 관객

1.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17:00 ~ 18:3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3. 참석자 명단

[표 2-14] 참석자 명단 [그룹4] 관람객 : 마니아 관객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5)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C	남	50대	30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3)	마니아 관객	PA050	남	50대	8년
	마니아 관객	PA051	여	20대	5년
	마니아 관객	PA052	여	20대	5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분야 진입 및 관람 현황
- 마니아 관객 및 관람 문화
- 관람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극 분야 대내외 요소
- 환경변화 : 기술 발전 및 기후 위기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열악한 관람 환경
- 창작 주체와의 소통
- 유료 관객 비율
- 작품 리뷰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마니아 관객 중심 소비, 배우 의존, 낮은 경쟁력으로 대중 확산이 어려움

1) 마니아 관객 중심의 한정된 접근성

■ 관객층이 주로 마니아층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반 관객의 접근성이 낮음

■ 연극 관람층은 마니아관람객들이 형성한 특정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음

"연극은 보통 마니아층 위주로 돌아가고, 소극장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된 관객들만 오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얼굴은 잘 없는 편이죠. 이게 뮤지컬하고는 또 좀 달라서, 뮤지컬은 팬덤이 강하고, 좋아하는 배우 따라서 회전문 돌면서 보는데 연극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특정 배우나 연출가 따라가는 사람들은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극은 대중적인 접근이 어렵다고 봐요." (PA050)

"연극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이미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처음에 트위터에서 연극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관심이 생겨서 보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이 극이 재밌다'는 글이 돌면, 그걸 보고 보러 가는 경우가 많죠. 결국 연극을 보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느낌이에요." (PA052)

2) 작품이 아닌 특정 배우 중심의 소비 현상

■ 특정 배우를 따라가는 관객이 많아 작품보다는 배우 위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연극을 처음 본 계기도 좋아하는 배우가 작품에 출연해서 보게 됨

"원래 뮤지컬을 더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연극에 출연한다고 해서 국립극단 공연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극에도 관심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연극도 배우 때문에 보는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뮤지컬처럼 특정 배우의 팬덤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배우가 연극을 하면 그 배우가 출연하는 회차를 찾아서 보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PA051)

3) 타 장르 대비 낮은 경쟁력

■ 영화에 비해 연극은 높은 비용과 불편한 관람 환경으로 인해 대중적인 경쟁력이 낮음

> "연극이 영화랑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는 할인도 많고 14,000원 정도면 되는데, 가면 팝콘 먹으면서 편한 의자에서 볼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잖아요. 연극은 그게 안 돼요. 돈은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의자도 불편하고, 조용히 있어야 하고, 중간에 나가기도 어렵고. 이런 점들이 연극이 관객 유입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PA050)

나. 생태계 이슈

관람 환경, 티켓 가격, 작품의 다양성 및 홍보 부족 등이
관객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기됨

1) 소극장의 열악한 관람 환경

■ 소극장의 불편한 좌석과 부족한 대기 공간이 관람 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관객의 유입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대학로 소극장들 의자가 진짜 불편해요. 허리 받쳐주는 것도 없고, 좌석 간격도 좁고.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드니까 공연 볼 때 자꾸 자세를 바꾸게 되는데, 그럼 또 뒤에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대극장 가면 그래도 자리도 넓고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소극장은 기본적으로 관람 환경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PA050)
>
> "소극장 가면 의자가 너무 불편해서 두 시간 내내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극장 내 대기 공간도 부족해서 공연 전에 기다릴 곳도 없어요. 대극장 극장들은 그래도 쾌적한데, 소극장은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처음 온 사람들은 더 불편하게 느낄 것 같아요." (PA052)

2) 회전문 관객 관련

■ 연극 관객 중 일부는 작품 분석 또는 특정 배우를 이유로 수차례 반복 관람하는 경향이 있음

> "저도 같은 연극을 30번 이상 본 적이 있어요. 한 작품을 여러 번 보면서 무대 연출이나 조명 같은 걸 자세히 분석하는 게 좋아서요. 저처럼 작품을 연구하는 이유로 여러 번 보는 사람도 있지만, 특정 배우를 좋아해서 같은 회차를 반복 관람하는 팬덤도 꽤 많아요." (PA052)

3) 작품의 다양성 관련

■ 다양한 소재와 새로운 시도가 부족해 새로운 관객층의 확장이 어려운 상황임

- 특정 배우 위주의 캐스팅 문제
- 새로움이 없는 반복적인 작품 공연 지속 문제

> "연극도 좀 더 다양한 소재를 다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특정 배우 위주의 캐스팅이나,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작품들이 많아서 새로운 극을 찾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극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관객층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PA051)

4) 티켓 가격 관련

■ 청년 할인 혜택의 감소로 연극 관람에 부담이 커짐

■ 티켓 가격의 부담으로 관람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됨

> "저는 원래 청년 할인이나 푸른티켓 같은 걸로 연극을 저렴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만 24세까지 할인해 주는 곳이 있고, 18세까지만 할인되는 곳도 있고,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나이를 넘겨서 할인을 거의 못 받게 됐는데, 그때보다 관람 횟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연극을 보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돼서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게 돼요." (PA051)

5) 소극장 연극의 홍보 부족 관련

■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소극장 대비 비교적 홍보가 잘 되는 편임

■ 소극장 공연은 홍보가 부족해 공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신규 관객 유입이 어려움

>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큰 극장은 그래도 홍보가 잘 돼서 '이런 공연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소극장 공연은 홍보가 너무 안 돼요.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데서 누가 봤다고 올려주면 그제야 알게 되는 수준이에요. 인터파크에서 순위 보면서도 작품 찾긴 하는데, 소극장 공연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때가 많죠." (PA050)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경직된 연극 관람 문화, 소극장 연극의 분산된 예매 시스템, 정보 부족 등에 대해 개선 필요

1) 관람 문화 개선 관련

■ 연극 관람 문화의 경직성이 관객 유입을 제한시킴

■ 보다 자유로운 관극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미국에서 연극 보면 어떤 공연은 술도 마시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경직돼 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눈치 보이고. 물론 작품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더 자유로운 관극 문화가 자리 잡으면 더 많은 사람이 보러 오지 않을까 싶어요." (PA050)

2) 티켓 예매 관련

■ 대극장 연극은 티켓 예매가 비교적 간편한 반면, 소극장 연극은 예매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음

■ 연극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연극 예매가 너무 복잡해요. 대극장 연극은 인터파크 같은 곳에서 예매가 쉬운데, 소극장 연극은 제작사마다 예매처가 다 달라서 찾기가 힘들어요. 가끔은 구글폼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서 정보가 더 부족한 느낌이에요. 한 곳에서 연극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PA052)

3) 정보 제공 채널 강화 필요성

■ 소극장 연극은 홍보 부족과 분산된 예매 시스템으로 인해 관객이 정보를 찾기 어려움

■ 공연 정보를 주로 SNS를 통해 접하는 일반 관객들을 위해, 연극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 마련이 요구됨

■ 연극 자료의 아카이빙 시스템 부족으로 과거 작품 정보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은 홍보가 잘 되지만, 대학로 소극장 공연은 진짜 정보가 없어요. 극장마다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 예매처도 다 다르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공공기관이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PA050)

"연극을 찾아볼 때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먼저 검색해 봐요. 공식적으로 모아놓은 정보가 별로 없어서 SNS에 올라오는 정보를 찾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공연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쉽게 찾고 예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A051)

"연극은 영화처럼 데이터가 많이 남지 않잖아요. 어떤 연극이 언제 어디서 상연됐는지, 어떤 연출과 배우들이 참여했는지를 정리한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연극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서, 몇 년 전 작품을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PA052)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1. 구성

■ G1. 중앙 및 지자체, G2. 중앙 및 지역 문화재단, G3. 민간 지원 관계자, G4. 민관 후원기관 관계자, G5. 연극인 복지 민관(지원) 관계자의 5개의 소그룹으로 진행함

[표 2-15] 소그룹 구성 :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구분	일시	장소	참석 인원
G1. 중앙 및 지자체	2024년 12월 19일(목), 14:00 ~ 16: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분야 전문가 5인
G2. 중앙 및 지역 문화재단	2024년 11월 21일(목), 12:00 ~ 13:3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분야 전문가 5인
G3. 민간 지원 관계자	2024년 12월 13일(금), 13:40 ~ 15:2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분야 전문가 2인
G4. 민관 후원 기관 관계자	2024년 12월 20일(금), 16:00 ~ 18: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분야 전문가 3인
G5. 연극인 복지 민관(지원) 관계자	서면 자문 진행	-	분야 전문가 2인

2. 소그룹별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 G1. 중앙 및 지자체 : 중앙 대비 지역은 문화예술 인프라와 지원사업에서 불균형을 겪고 있는 상황임

■ G2. 중앙 및 지역 문화재단 : 연극 지원체계 개편 속 예산 차이, 청년 유출, 지원 기준의 모호성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됨

■ G3. 민간 지원 관계자 :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실험적 창작을 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지원하고 있음

■ G4. 민관 후원기관 관계자 : 연극은 높은 제작 비용, 제한된 공연 횟수 등으로 인해 후원 비용 부담이 크고, 시각적 결과물이나 브랜드 연계 효과도 낮아 기업 후원이 어려운 구조임

■ G5. 연극인 복지 민관(지원) 관계자 : 현재 연극계는 인맥 중심 진입, 교육-현장 간 격차, 인력 불균형, 생계 어려움 등을 겪고있는 상황임

나. 생태계 이슈

■ G1. 중앙 및 지자체 : 지역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 지원 현실과 괴리된 중앙 정책, 중앙 기관과의 연극 지원사업의 진입 장벽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G3. 민간 지원 관계자 : 작품의 지속적 무대화, 창작자의 성장 단계별 지원, 기획자 주도의 창작자 발굴 등을 통해 생태계 개선 필요

■ G5. 연극인 복지 민관(지원) 관계자 : 서면계약 미비, 노동자 인식 부족, 분야 내 사회적 위계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 G1. 중앙 및 지자체 : 공공극장 활성화, 지역 맞춤 지원 서울-지역 네트워킹 강화 등의 지원 필요
- G2. 중앙 및 지역 문화재단 : 청년, 신규 예술가 지원 확대, 지원 대상 명확화, 다년도 지원 강화 등 개선 필요
- G3. 민간 지원 관계자 : 공공 - 신진, 민간 - 기성 창작자를 지원하며, 비평 활성화와 기성 창작자 지원 확대가 필요함
- G4. 민관 후원기관 관계자 : 후원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 연계,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 공공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함
- G5. 연극인 복지 민관(지원) 관계자 : 분야 생태계 발전을 위해 신중진 예술인 지원 확대, 극장 인프라 개선, 해외 교류 확대 등 필요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중앙 및 지자체

1. 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14:00 ~ 16: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3. 참석자 명단

[표 2-16] 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중앙 및 지자체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지역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공공	-	PA-A	여	50대	35년
	민간	-	PA-B	남	50대	33년
	공공	-	PA-D	여	40대	15년
	민간	-	PA-E	-	-	-
참석자(n=5)	공공	중앙	PA053	남	60대	25년
	공공	부산	PA054	여	40대	10년
	공공	중앙	PA055	남	40대	1년
	공공	대구	PA056	남	60대	40년
	공공	광주	PA057	여	50대	0.5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지역 문화정책 및 지역 예술계 현황에 대한 인식
- 국가와 지역 문화정책의 연계성과 한계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창제작 유통지원 변화
-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 전용 공연장 필요성
- 창작 인프라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중앙 대비 지역은 문화예술 인프라와 지원사업에서 불균형을 겪고 있는 상황임

1) 지원사업 없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

■ 연극 창작자/단체의 대다수가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남

■ 이러한 맥락에서 연극 창작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 서울시가 창작 환경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조사에 참여하신 연극인 분들의 창제작 편수를 보면 보통 한 해 네다섯 편 정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비율이 73% 정도입니다. 결국, 지원 없이는 창작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구조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PA055)

2) 중앙 - 지역 불균형 관련

■ 지역 공연 시장은 서울의 30% 미만의 수준으로 체감되며,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 광주의 경우 연극 전용 극장이 없고, 예산 확보 문제로 공연예술 전용 국립극장 건립도 난항을 겪고 있음

■ 지역은 극장과 창작 공간의 부족으로 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사업은 서울 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아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부산의 공연 시장 규모는 서울 수도권의 25~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보복 소비 현상인지, 정말 시장이 성장한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요. 중요한 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관객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PA054)

"광주에는 국립 연극 소극장도 없고, 연극 전용 극장도 없습니다. 현재 예술전용 극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극장은 물론이고, 연극인들이 연습할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극장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PA057)

"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예술 지원 정책에서 지방에 대한 가점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방 연극계를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은 국립극장, 공공극장, 대형 민간극장 등이 많아 자연스럽게 연극 창작이 이어지는 반면, 지역에서는 극장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원금 심의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다 보니 지역 단체들이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죠." (PA056)

나. 생태계 이슈

지역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 지원 현실과 괴리된 중앙 정책,
중앙 지원기관의 연극 지원사업의 진입 장벽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1) 지역 내 인력 부족 현상

■ 지역은 공연 기술 인력이 부족해 창작 비용 부담이 커지고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
- 서울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제작비 부담 상승

"공연을 올리려면 창작 예술인뿐만 아니라 조명, 음향, 무대 기술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 인력들이 정말 부족해요. 결국 기술 인력을 서울에서 불러와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제작비 부담이 커지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가기 어려워지는 거죠. 지역에서도 기술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PA054)

2) 지역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사업

■ 연극 지원에 대한 중앙 정책이 지역별 생태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역 공연예술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의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이 왜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 지역도 다를 거고, 그 지역 안에서도 구나 극장마다 생태계가 다를 텐데, 이런 게 하나도 돌보아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전체에 다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A053)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예산 매칭이 어려워 결국 3개 중 1개 단체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PA057)

3) 지역 예술인의 예술위 지원사업 진입 장벽

■ 지역 예술인들은 예술위 지원사업의 절차적 복잡성,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함

"예술위 사업을 신청하는 게 지역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공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배우는 게 많았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처음 도전하기까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런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PA054)

4) 특정 상업극 단체에 집중되는 청년패스 지원사업의 한계

■ 청년 문화 패스 혜택이 일부 상업 연극 단체에 집중되고 있음

■ 순수 연극 단체는 상대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청년 문화 패스를 통해 연극 관객층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상업 연극 단체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순수 연극을 하는 단체에서는 '우리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아요. 특정 공연들만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PA055)

5) 지역 내 공공극장 전문 인력 관련

■ 지역 내에 공공극장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극장 내에 전문인력이 없고, 단순 시설로만 관리되고 있음

> "상주단체 지원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시는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 그런데 인천만 해도 각각의 구 안에 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장에 전문 인력이 전무합니다. 그냥 그 극장은 시설로 관리되고 있어요. 극장이 생태계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PA053)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공공극장 활성화, 지역 맞춤 지원 서울-지역 네트워킹 강화 등의 지원 필요

1) 공공극장 활성화 관련

■ 공공극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창작자들과 결합하여 지속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함
- 상주 단체가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지역 창작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예술전용 극장 설립 지원 필요

"공공극장이라고 해서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과 결합해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축제도 플랫폼 기능을 해야 하고, 극장도 플랫폼 기능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극장은 단순히 공연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극장에 상주하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PA053)

"극장이 창작자들과 장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작자들은 결국 미래를 계획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서울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작자들에게 안정적인 공간과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지역 연극계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지원이 단기적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극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PA053)

"현재 예술전용 극장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극장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극장이 없으면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PA057)

2) 지역 예술단체 맞춤형 지원 트랙 신설

■ 지역 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과 지역을 분리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 트랙 신설이 필요함
- 현 지원 방식은 지역에서 활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음

"지방의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트랙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서울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지역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단체들은 지원금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모 지원 방식도 지역에서는 활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지역 예술단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A056)

3) 중앙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에서 서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교통비, 숙박비 등의 현실적인 지원 필요

- 반대로 서울 내 단체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온라인 설명회 활성화로 지역 예술인들의 국가 지원 사업 접근성이 개선되었음.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함

"지역에서 서울의 프로그램과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통비나 숙박비 지원 같은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할 때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참여율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반대로, 서울의 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PA054)

"코로나 이후 온라인 설명회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지원 사업을 처음 신청해 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서울까지 와야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줌(Zoom)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부담이 덜한 거죠. 이런 기회가 계속 제공되면, 지역 예술인들이 문예위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PA054)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중앙 및 지역 문화재단

1.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2:00 ~ 13:3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3. 참석자 명단

[표 2-17] 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중앙 및 지역 문화재단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지역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공공	-	PA-A	여	50대	35년
	민간	-	PA-B	남	50대	33년
	공공	-	PA-D	여	40대	15년
	민간	-	PA-E	-	-	-
참석자(n=5)	공공	중앙	PA058	남	50대	10년
	공공	충북	PA059	남	50대	30년
	공공	대전	PA060	여	40대	9년
	공공	부산	PA061	여	40대	20년
	공공	대구	PA062	여	30대	12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중앙-지역재단 지원사업 현황
- 지역 예술생태계 현황
- 지역 지원사업 현황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국가 재원의 효율성 제고
- 지원사업 유형의 차별화
- 지역-중앙 연계방안
- 지역소멸과 청년, 지역 축제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및 생태계 이슈

연극 지원체계 개편 속 예산 차이, 청년 유출,
지원 기준의 모호성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됨

1) 기관별 주요 현황

■ 유통 및 해외교류 사업은 최소화하고, 창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하는 상황임

> "저희 OOO 같은 경우에는 예년 대비해서 되게 아웃바운드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는 이제 창작 중심으로 가는 건데 [...] 문체부에서도 실 단위로 국제교류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유통까지 나가는 부분은 좀 최소화하고, 창작 지원 쪽에 약간 방점을 두는 쪽으로 했어요." (PA058)

■ 공연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창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OO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시장님 결재를 받고, 2022년도에 45억이 든 예산이 내년이 되면 85억입니다. 우수예술 지원만. 그렇고 마켓 예산이 올해 13억으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 공연장상주단체사업 예산 8억 5천이 별도로 있었고요. 거리예술 2억. 이렇게 해서 창작지원에 들어가는 예산만 유통하고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1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해서 돼 있고. [...]" (PA061)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원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 "예산 같은 상황도 저희가 크게 예산 파이를 봤을 때 33억 파이로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22년 10월 통합 이후에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계속 삭감이 되어 왔고, 올해 30% 정도 삭감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A062)

2) 지역 내 청년 예술인 부재

■ 지역 내 예술대학이 있지만, 졸업 후 지역 내에 정착하지 않음

■ 청년 예술인들의 지역 정착이 어려워 신규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임

> "저희 OO 지역에 그래도 예술대학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졸업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쪽 예술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레지던시 예술사업이나 아니면 미술관에서 하는 지원사업 이런 쪽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일반 예술지원사업에는 아예 들어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PA060)

3) 지원사업 대상 기준의 모호함

■ 예술활동 증명의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지원사업의 대상이 혼란스러워짐

■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음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예 필요가 없잖아요. 활동하신 거지 예술인은 아니잖아요. 창작활동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 (PA059)

"특히 코로나 때 긴급 지원을 해주면서 긴급 지원을 해주는 대상자들, 예술활동 증명 있는 예술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생활예술인까지 해서 예술활동 증명으로 진입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문예술가의 구분이 애매해졌다. [...]" (PA061)

4) 지원사업 중복 관련

■ 연극 분야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의미있는 중복이긴하나, 예산 효율성과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전국적으로 단위로 보면 너무 중복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겹, 3겹, 4겹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사각지대가 있지 않는가, 또 어디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PA058)

나.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청년, 신규 예술가 지원 확대, 지원 대상 명확화, 다년도 지원 강화 등 개선 필요

1) 신규 및 청년예술가 대상 지원체계 개편 필요

■ 신규 단체 및 청년 예술가 대상 실질적인 기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 필요

■ 청년 예술가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단체들의 독점을 막고, 신규 단체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 개편 추진 필요

"사실 이게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매년 거의 받으시는 단체나 개인들이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을 하시면 자립을 해서 떠나시고, 새로운 단체들이 들어오고 와주고 해야 되는데, 매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PA060)

"[...] 겹치기 출연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몇 배 크다는 겁니다. 신규 단체가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 문제 있다가 나올 텐데, 청년예술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그만큼 얇아지는 거거든요." (PA059)

2) 지원 대상 명확한 구분 필요

■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을 구분하여 지원사업 마련 필요

- 생활예술의 경우 단체의 창작지원 배제 및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 필요

" [...] 결국에는 창작지원이 전문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 OO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본부가 있고, 생활문화본부에서 지원하는 예술 동아리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 등록된 단체들은 저희가 지원 배제를 해 버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 방법 말고는 본인이 예술가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그런 얘기가 너무 어렵고, 대신에 이제 저희도 최근 3년간 활동이나 실적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호한 케이스들이 좀 많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PA061)

"생활문화 영역은 간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생활문화센터 개관 이후로 지원금을 직접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 (PA062)

3) 다년도 지원사업 확대 필요

■ 단년도 지원보다 다년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필요

"창작지원사업에서 유료 공연을 조건으로 한 장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요. [...] 보조금이 아닌 일부 지원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PA059)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간지원 관계자

1. 일시

■ 2024년 12월 13일(금), 13:40 ~ 15:2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3. 참석자 명단

[표 2-18] 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간지원 관계자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2)	민간	PA063(추가 의견 서면자문)[2]	남	40대	17년
	민간	PA064(추가 의견 서면자문)	여	30대	17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민간 지원단체 현황 및 특징
- 지원 방향 및 방식 설계 배경과 미래 방향
- 민간 VS 공공지원 차별화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신징 창작자 중심 지원
- 멘토 제도
- 지원 방식
- 지속성 있는 지원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2) PA063, PA064의 경우, FGI 종료 후 추가 질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자문 진행하였음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및 생태계 이슈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실험적 창작을 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지원하고 있음

1) 기관별 지원 현황

■ (B기관) 지원 기관 역할뿐 아니라 창작자들이 상업적 부담 없이 실험적 작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작 극장의 역할도 하고 있음

"저희 재단은 단순한 지원 기관이라기보다는 제작 극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외부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적 작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시도는 상업 공연장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업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실험성이 강하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저희 같은 민간 재단은 이러한 실험적 창작이 가능하도록 제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PA064)

■ (A기관) 창작자의 상황, 작품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연극, 뮤지컬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극장 정체성 및 공모 특성상 연극 장르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구조임

"연극과 뮤지컬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창작자의 상황과 작품의 시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합니다. 이는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이며, 차별적 지원을 지양합니다. 다만, 극장 정체성과 공모 채널 특성상 연극 장르가 압도적으로 많아 연극 창작자와 작품이 지원 선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연극 창작자들이 몰리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뮤지컬도 지원하지만, 연극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PA063)

2) 신진 창작자에 대한 지원 관련

■ 신진 창작자 중심의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연극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신진 창작자는 연극계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인적 자원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반목과 저항, 전복의 속성을 가지며, 세대교체는 창작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신진 창작자 양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지원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며, 모든 창작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견 및 베테랑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갈 기반은 공공 부문에서 정책 평가와 개선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PA063)

3) 상업성 - 실험성 사이의 균형 관련

■ 실험성이 높은 작품이 단순한 시도로 끝나지 않고,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 필요

- 상업성과 실험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저희는 실험성이 높은 작품을 제작하지만, 동시에 작품이 시장에서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성과 예술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객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요소를 고민해야 하고,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기관에서도 단순히 '실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험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A064)

나. 개선 방안

작품의 지속적 무대화, 창작자의 성장 단계별 지원,
기획자 주도의 창작자 발굴 등을 통해 생태계 개선 필요

1) 후속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한 작품을 제작 후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닌, 작품이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외부 극장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물리적 자원 무상 제공

> "저희 재단은 1~2년 동안 작품을 개발하고, 이후에는 외부 극장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모든 물리적 자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대 세트, 의상, MR 녹음까지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작자들이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번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이 한 번 무대에 오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PA064)

2) 창작자의 성장단계에 맞춘 지원 필요

■ 창작자 공동체 활성화, 실험적 창작 지원, 장기적 지원, 실무 교육 등을 통해 창작자의 성장과 지속성을 지원해야 함

"① 창작자 공동체를 활성화해 동료 간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조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② 실험적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작 과정에서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장기적인 창작 지원을 통해 창작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단기적 지원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④ 주제별 세미나 및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창작자의 역량 강화를 돕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창작뿐만 아니라 유통과 기획까지 고려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PA063)

3) 기획자 주도의 창작자 발굴

■ 공모제 대신 기획자 주도의 창작자 발굴 방식을 운영하여 예술가와 긴밀한 협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자와 창작자가 1년간 소통하며 최적의 프로젝트 기획
- 창작자의 작업 가능성 판단

"OO재단은 공모가 아닌 기획자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창작자를 선정합니다.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가능성을 가진 창작자를 직접 발굴하고, 그들과 1년간 소통하며 최적의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공모제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창작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창작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업을 보면서 가능성을 판단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작자와 기획자가 긴밀한 협업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PA064)

다. 공공지원

공공 - 신진, 민간 - 기성 창작자를 지원하며,
비평 활성화와 기성 창작자 지원확대가 필요함

1) 공공 - 민간 지원 역할 구분

■ 연극 생태계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 지원의 역할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생태계 구축 필요

- 공공
  : 형평성을 우선으로 최대 수혜자 목표로 폭넓은 창작자들에게 기회 제공
  : 신진 창작자 중심의 지원
- 민간
  : 신작 콘텐츠 질 향상
  : 기성 창작자의 실험적 작업 중심 지원
  :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공공 지원은 형평성을 우선으로 최대 수혜자를 목표로 한다면, 민간 지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작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민간은 특정 창작자를 깊이 있게 지원할 수 있지만, 공공 지원은 보다 폭넓은 창작자를 포괄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PA063)

"공공 지원은 신진 창작자를 중심으로, 민간은 기성 창작자의 실험적 작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명확해야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공 지원은 폭넓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지원은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창작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창작자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PA064)

2) 연구 및 비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연극 비평 및 비평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극 생태계의 비판적 담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창작자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작품에 대한 담론 형성은 부족함

"비평 워크숍을 통해 비평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창작자와 비평가 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비평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연극 생태계 내 비판적 담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 많지만, 작품에 대한 담론 형성이 부족합니다. 비평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작품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부족해지고, 창작자들도 발전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PA063)

3) 기성 창작자 대상 지원 확대 필요

■ 공공 지원이 신진 창작자에 집중되어 있어 기성 창작자의 실험적 작업 기회가 부족한 상황임

■ 프로 무대에 데뷔한 창작자가 실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공공 지원은 신진 창작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기성 창작자들이 실험적인 작업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프로 무대에 데뷔한 창작자가 실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진 창작자도 중요하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성 창작자들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 지원은 주로 신진 창작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성 창작자들이 실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PA064)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관 후원기관 관계자

1.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16:00 ~ 18: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3. 참석자 명단

[표 2-19] 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민관 후원기관 관계자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3)	민관	PA065	남	30대	10년
	민관	PA066	여	40대	4년
	민관	PA067	남	40대	13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예술후원 현황 진단
- 후원 현황 평가
- 후원 주체별 역할
- 현 후원체계의 장단점
- 만긴 및 공공부문 후원의 역할과 기여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지속 가능한 후원체계 구축 방안
- 예술 단체의 후원 유치 노력
- 후원 인식 제고 방안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및 생태계 이슈

연극은 높은 제작 비용, 제한된 공연 횟수 등으로 인해 후원 비용 부담이 크고, 시각적 결과물이나 브랜드 연계 효과도 낮아 기업 후원이 어려운 구조임

1) 공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후원의 어려움

■ 연극 공연을 위해 필요한 무대, 조명, 대기 공간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며, 이를 구축하는 비용이 후원의 부담 요인이 됨

> "저희 공간에서 연극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시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어야 하고, 배우들이 뒤에서 대기할 수 있는 가림막이나 통로도 필요하고, 조명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 공간은 그런 게 다 안 갖춰져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이 갖춰져야 연극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후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PA065)

2) 투자 대비 낮은 효과성

■ 기업은 후원 효과가 기사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연극의 경우 시각적 결과물 제시가 어려움

■ 이에 따라 연극분야는 기업이 원하는 주제에 맞춰 작품을 제작하기 어려워 후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기업들은 보통 결과물을 남기고 싶어 하세요. 미술은 작품이 남고, 음악은 녹음이 가능하지만, 연극은 공연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또 기업이 원하는 주제에 맞춰 연극을 제작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연극을 후원 대상으로 고려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거죠." (PA066)

3) 타 장르 대비 높은 비용, 낮은 효율성

■ 연극은 높은 공연 투입 비용 대비 공연 횟수가 적어 기업에서 관심이 낮음

- 동일한 비용으로 클래식 공연 시 20회 이상 공연 가능, 연극은 10회 공연도 어려운 상황

> "클래식 공연은 같은 예산으로 20회 이상 투어할 수 있지만, 연극은 10회도 하기 어려워요. 무대 설치, 조명, 배우들의 이동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클래식이나 뮤지컬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PA067)

■ 연극 공연과 음악 공연의 차이점을 경험하며, 연극이 훨씬 더 많은 준비 과정과 비용이 필요함을 느낌
- 일례로 음악의 경우, 당일 세팅, 리허설 후 공연이 가능하나, 연극은 사전 답사만 20회 이상 필요함

"저희가 OOOO랑 협업해서 음악 공연을 진행했는데, 당일 오전에 와서 세팅하고 리허설 한두 번 하고 공연을 끝내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연극 같은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OOOO와 협업하면서 준비하는 과정만 해도 공간을 사전 답사하는 것만 20번 이상 했고, 아직도 리허설을 안 했어요. 공간에 대한 요구도 많고, 배우들의 동선, 조명, 음향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PA065)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후원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 연계,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 공공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함

1) 연극과 사회공헌 요소와의 연계 필요

■ 연극을 기업 후원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객 개발 및 사회공헌적 요소와의 연계가 필요함

"현재 연극계는 기업 후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기업들은 단순한 창작 지원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극이 후원을 받으려면, 단순한 창작 지원이 아니라 관객 개발과 사회공헌적 요소를 고민해야 해요. 장애 예술인과 함께하는 연극,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연극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후원받기가 쉬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 청소년 대상 연극 교육을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업들도 단순한 공연 후원보다 이런 형태의 후원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연극단체가 이러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A066)

2)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 구축 필요

■ 단순 창작 지원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인 후원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기업과 연계한 장기 사회공헌 프로젝트 개발
- 교육,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과 연계

"현재 연극 후원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이 후원을 하더라도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나기 쉬워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극 후원을 단순한 창작 지원으로 접근하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이 후원 모델을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연극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줘야 해요. 예를 들면, 특정 기업과 연계해 연극 기반의 장기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거나, 연극을 교육이나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과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후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고, 연극계에도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가 마련될 수 있어요."(PA067)

3) 공공 차원의 인프라 지원 필요

■ 공공기관의 공간 및 인프라 지원이 부족해 연극 단체들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고, 민간 후원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움

■ 공공 차원에서 연극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지원 필요

> "연극은 공연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많아요. 단순히 무대를 빌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연극은 단순한 공간 대관이 아니라, 리허설 공간, 조명, 음향 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민간 후원으로는 이런 걸 충당하기 어렵죠. 기업들도 후원을 고려할 때 공연 결과물보다는 인프라 비용 문제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연극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공공 문화시설을 연극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극단을 위한 공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연극 창작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고, 민간 후원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PA065)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연극인 복지 민관(지원) 관계자

1. 일시/장소

■ 서면 인터뷰 진행

2. 참석자 명단

[표 2-8] 참석자 명단 [그룹5] 공공, 민간지원 관계자 : 연극인 복지 민간(지원) 관계자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참석자(n=2)	민관	PA030(서면자문)	여	50대	-
	민관	PA031(서면자문)	여	40대	15년

3.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분야 진입, 교육
- 창작 인력풀 및 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
- 연극 창작 활동 및 생계 유지 현황
- 창작자 커리어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서면계약 및 고용 안정성
- 분야 내 사회적 위계
- 연극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현황
- 예술인에 대한 노동자 인식 현황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현재 연극계는 인맥 중심 진입, 교육-현장 간 격차,
인력 불균형, 생계 어려움 등을 겪고있는 상황임

1) 분야 진입

■ 연극 분야 진입은 일반적인 회사 채용 형식이 아닌, 교수님의 극단 추천, 인맥 활용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극단을 만들어서 진입하는 경우도 있음

■ 다만, 오디션 기회가 부족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연극영화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일반 기업처럼 신입사원을 뽑는 형식으로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필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극단이나 추천으로 공연 관련 일을 시작하거나, 청년 지원사업이 많다보니 졸업하고 바로 극단을 만들어 시작하기도 합니다. 공연 창작자의 경우 무엇보다 경력과 경험이 중요하기에 포트폴리오를 착실히 쌓아가면서 기회를 얻는 것이 일반적인데, 극단이나 공공기관의 예술단체들이 창작자들에 대한 오디션 기회가 많지 않아 주로 인맥을 통해 진입하게 되는 구조이고, 오디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한 점은 연극계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야 원인 분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A068)

2) 교육 커리큘럼과 현장 실무 간 격차

■ 연극영화과(예술대학)의 이론 중심 교육은 현장 실무와 격차가 있어 졸업 후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어려운 상황

- 실무 투입 시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며, 직업 윤리(계약, 저작권, 회계 등)에 대한 교육도 부족

■ 국내 대학 내에 연극영화과가 많아 배우는 많이 배출하고 있으나, 연출·기술 인력은 부족한 상황

"정규교육과 현장 간의 간극이 최근 좁혀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크다고 여겨집니다. 예술인실태조사 등을 보면 예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매우 높은 수준인데, 정작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요. OO대학 등 일부 기관에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학교는 이론 중심이거나 제작 현실과 동떨어진 프로그램이 많아, 졸업 후 실전에 적응하기 위해 재교육을 받는 사례가 잦습니다. 또한 예술인에게 필요한 계약, 저작권, 세무, 회계 등 직업윤리 교육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PA069)

"국내 대학 연극영화학과가 많다 보니 배우 배출은 매우 충분히 많고, 연출, 작가, 무대기술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에요. 대학 졸업자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배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장에 투입되어 전문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의 장은 여전히 협소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특히 연출이나 기술직군은 실제 무대 경험을 통한 학습 기회가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PA068)

3) 공공기관 - 민간단체 간 인력 현황

■ 기획 및 행정 인력의 안정적인 공공기관 선호 현상으로 인해 민간단체는 인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이는 장기적으로 연극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획·행정 인력의 경우 고정 수입이 없거나 생활비 마련도 어려운 정도의 수입이라 민간 단체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이 많아지면서 대다수 기획 인력이 안정적인 조건을 찾아 공공기관으로 이직했습니다. 이는 민간 단체의 기획·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연극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A068)

4) 생계 유지를 위한 창작 단절·겸업

■ 연극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이런 구조는 창작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연극을 포함한 기초예술 분야는 여전히 예술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공연제작비 충당도 힘들어 예술인의 인건비는 항상 마지막 순위로 밀리는 구조이고, 결국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술교육이나 문화강사,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배달, 운전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도 많고, 중견 예술인들도 예외가 아님. 이런 겸업 구조는 장기적으로 창작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PA069)

나. 생태계 이슈

서면계약 미비, 노동자 인식 부족, 분야 내 사회적 위계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1) 서면계약 및 고용 안정성

■ 공공사업은 서면계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민간 극단의 경우, 낮은 공연료, 가까운 작업 관계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구두 협의가 많은 상황임

- 계약 불이행, 저작권 분쟁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서면계약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음에도 현장 인식은 낮아, 분쟁 발생, 예술활동 실적 및 증명 발급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을 위해 계약서를 필수로 요구하므로 서면계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극단 중심의 공연에서는 공연료 자체가 적고, 작업 관계도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구두 협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계약서가 있어도 계약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계약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피해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나 작가, 연출의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현재 음악 저작권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무대 디자인이나 연출 등 시각적 요소의 저작권 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PA068)

"예술인 복지법 개정 이후 문화예술사업자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시 서면계약이 의무화되었고, 2020년부터는 미체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인식은 낮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번거롭고, 법적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분쟁 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사회보험 가입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술활동 실적이나 예술활동증명을 제출할 때도 서면계약이 없으면 증빙이 어렵다는 점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PA069)

2) 예술인에 대한 노동자 인식 현황

■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흐름은 확산되고 있으나, 예술활동의 특수성과 불규칙한 소득을 반영한 제도적 기준과 설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예술인을 노동자로 볼 것인가,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법적 해석이 갈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의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근로자 정의(지휘·감독 관계)와 예술활동의 특수성이 충돌하여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술을 '직업적 활동'이자 '노동'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기존의 근로자 복지제도가 예술인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세부 기준은 미흡하고, 예술인의 특수성과 불규칙한 수입 구조를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PA069)

3) 연극계 내부 권력구조로 인한 불공정 사례

■ 연극계는 여전히 위계적 구조 속에서 연출·기획자 중심의 권력이 작용하며, 서면계약 미체결 시 부당한 요구, 불공정 행위가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연극계 내부의 위계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캐스팅이나 배역 배분 시 연출이나 기획자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성희롱, 괴롭힘, 계약 조건 강요 등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서면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관계에 의한 부당한 요구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PA069)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분야 생태계 발전을 위해 신중진 예술인 지원 확대,
극장 인프라 개선, 해외 교류 확대 등 필요

1)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1) 신진 예술인 대상

■ 신진 예술인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생계유지를 위한 환경 마련과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연극분야에 진입한 신진 예술인들이 꾸준히 커리어를 쌓고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진들이 도태되고, 결국 기성 세대 중심의 생태계가 고착화됩니다. 따라서 생계 가능한 수준의 대가 지급 체계(표준단가 등), 성평등하고 위계 없는 창작 환경, 성장과 자기계발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층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PA069)

(2) 중진 예술인 대상

■ 신진 창작자 대상 지원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진 창작자 대상 지원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 작품 활동을 위해 겸업하는 경우가 많음. 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 필요

■ 좋은 작품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재공연·유통 시스템 구축 필요

> "요즘 예술 지원 정책은 대부분 청년 창작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진 창작자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나, 30대 후반 이후의 중년 예술인들은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고 생계를 위해 작품 활동 외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작품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브랜드 공연 중심의 재공연·유통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좋은 공연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A068)

3) 공연장 시설 개선 및 다양한 규모의 극장 확충 필요

■ 대학로 소극장 시설의 노후화 및 편의성 부족으로 인해 관객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어 시설 개선이 필요함

■ 중극장 등 다양한 규모의 극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학로 소극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관객 편의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좌석, 장애인 편의 시설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적 문제는 관객 유입의 장애 요소가 됩니다. 또한 100석 전후의 소극장 외에 300석 내외의 중극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극장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PA068)

4) 해외 교육 및 네트워크 교류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연극 생태계 발전을 위해 창작자 대상 해외 연수 및 교류 기회 제공 확대 필요

- 연극인 간 교류, 타 예술 장르와의 융합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

> "창작자들이 생계 문제로 자기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해외 공연 직관이나 단기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기초 예술 진흥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극인 간의 교류, 혹은 타 예술 장르와의 융합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도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 차원의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PA068)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1. 구성

■ G1. 강원권, G2. 대구, 경북권, G3. 광주, 전남권의 3개의 소그룹으로 진행함

[표 2-20] 소그룹 구성

구분	일시	장소	참석 인원
G1. 강원권	2024년 12월 16일(월), 16:00 ~ 18:00	춘천 봄내극장	분야 전문가 5인
G2. 대구, 경북권	2024년 12월 16일(월), 13:30 ~ 15:30	화상회의(Zoom)	분야 전문가 3인
G3. 광주, 전남권	2024년 12월 10일(화), 16:00 ~ 18:00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	분야 전문가 2인

2. 소그룹별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 G1. 강원권 :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며 도약하고 있는 강원권의 연극 분야

■ G2. 대구, 경북권 : 경북과 대구, 상반된 두 지역의 연극 생태계

■ G3. 광주, 전남권 : 문화적 발전, 연극 예산 삭감, 정책 변화 등으로 관객 감소와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

나. 생태계 이슈

■ G1. 강원권 : 인프라 부족과 지원 한계, 지역 연극의 지속 가능성 고민

■ G2. 대구, 경북권 :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의 불균형, 지역 연극의 고민

■ G3. 광주, 전남권 : 관객 감소, 인력 유출, 지역 불균형, 유통 기회 부족 등으로 지역 연극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음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 G1. 강원권 : 장기적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 가능성 모색

■ G2. 대구, 경북권 : 외부 협력과 내부 성장으로 지역 연극 활성화,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 연극 기반 마련

■ G3. 광주, 전남권 : 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해 홍보 플랫폼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 지역 공연 유통 활성화 등 필요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강원권

1. 일시

■ 2024년 12월 16일(월), 16:00 ~ 18:00

2. 장소

■ 춘천 봄내극장

3. 참석자 명단

[표 2-21] 참석자 명단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강원권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5)	강원	PA070	남	30대	13년
	강원	PA071	여	30대	31년
	강원	PA072(Zoom 참여)	남	40대	15년
	강원	PA073(일부 내용 서면자문)	여	50대	34년
	강원	PA074(서면자문)	남	50대	32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지역 연극 제작 및 유통 현황
- 지역 연극 전문유통 단체 및 공공 공연장 현황과 개선방안
- 지역 연극 지원사업 현황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지역 특성을 강화하며 도약하고 있는 강원권의 연극 분야

1) 강원권 지역 현황

■ 강원도는 전통 예술이 강세인 지역이며, 최근에는 연극의 장르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

■ 특히 춘천은 문화예술이 발달한 도시로, 많은 극단과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규모 극장과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활동을 확장하고, 관객 폭을 넓히고 있음

"강릉은 전통예술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연극은 마당극과 같은 형태로도 많이 올라갑니다. 공연 형식이 단순한 무대 연극을 넘어 지역 축제의 일부로 통합되거나, 지역 전통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주로 전통극과 마당극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현대극이나 실험극 같은 다양한 장르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이런 시도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PA070)

"춘천은 연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단체와 극단이 너무 많아 관객층이 나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관객층이 생길 가능성을 열어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PA074)

"춘천에서는 소규모 극장과 야외 공간에서 진행되는 연극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연극 관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PA074)

2) 지역 특색을 담은 콘텐츠 증가

■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연극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음

- 지역 연극이 지자체와 연계된 축제 및 관광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음

"만두축제처럼 지역 축제와 연계된 연극 콘텐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콘텐츠는 지역 문화재단의 기획 의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관광객들에게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A073)

"예를 들어 강릉에서는 바다와 어촌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 자주 올라가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릉의 특색을 살려 연극의 내용과 무대가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PA071)

3) 지역 내 예술 활동 증가

■ 지역 연극 환경을 보면, 직업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 간의 경계를 흐리며 연극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 지역 연극에서 직업 배우와 직업 스태프의 수가 증가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연극 활동에 참여하며,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전문 극단과 시민 극단이 공존하며, 직업 배우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정체성 아래 여러 극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연극이 가진 저변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PA070)

"지역에서는 직장을 가진 분들이 극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중에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고, 주말이나 저녁에는 연극 연습과 공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전문성과 생활 예술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A071)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출연하는 연극이 자주 열리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은 예술과 지역사회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PA072)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극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삼아 제작되는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PA073)

나. 생태계 이슈

인프라 부족과 지원 한계, 지역 연극의 지속 가능성 고민

1) 인프라 부족

■ 지역 연극은 인프라 부족과 관객층 한정으로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음
  - 연극 제작비와 홍보 예산이 부족하여 관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역 인재의 유출 현상 존재

"지역 연극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 부족입니다. 지역 공연장이 많지 않아 극단들이 공연 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객층이 제한적이어서 연극의 다양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합니다." (PA070)

"작품을 만들 때 제작비와 홍보 예산이 부족해서 관객들에게 알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좋은 작품이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A072)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연극 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갑니다. 지역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PA072)

2) 지역 예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족

■ 지역 연극은 행정적 지원 체계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함

"지역 재단의 행정적 접근 방식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PA073)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PA070)

3) 지역 특색 콘텐츠 편중

■ 지역 축제나 관광과 연계된 연극 콘텐츠가 많아지며, 본질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음

"지원금 정책이 관광이나 경제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연극의 본질적인 예술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PA071)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역 연극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PA073)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장기적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 가능성 모색

1) 장기적 지원 필요

■ 지역 연극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필요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연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술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PA073)

"지역 연극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축제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PA073)

2)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청년 예술가 활동 기반 마련

■ 청소년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극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청년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 및 네트워크 미련

"지역에 창작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공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A070)

"지역에서 연극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PA074)

3) 지역 특색의 적절한 활용

■ 지역 특색을 살린 연극 제작 지원 및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축제와 연계된 연극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 제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연극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릉에서는 해양 문화, 춘천에서는 도시 문화와 연결된 연극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PA071)

"지역 축제와 연계된 연극 프로그램이 단순히 부수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연극 단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PA071)

"지역 주민들이 연극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지역 연극의 뿌리가 깊어지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PA073)

4)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및 관객층 확대

■ 지역 연극계의 홍보 강화 및 관객층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연극계의 협업 플랫폼 구축 필요

"강원도 내 여러 극단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연극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072)

"지역 연극이 관객층을 확대하려면 홍보와 마케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채널을 통해 젊은 관객층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PA072)

5) 극장 확보 및 활용도 개선

■ 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한 공공극장 설립 필요

■ 공공극장의 접근성과 활용성 개선 필요

"지역 연극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극장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 장소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070)

"지역 공공극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연 단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대관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점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PA072)

5) 지원의 효율화 및 공정성 확보

■ 공공기관의 행정 절차 간소화

■ 공공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 필요

"지원금이 실제로 창작과 제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 과정과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면 창작자들이 더욱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지원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모든 연극 단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PA074)

"공공지원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인 창작과 제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PA072)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대구, 경북권

1. 일시

■ 2024년 12월 16일(월), 13:30 ~ 15:30

2. 장소

■ 온라인 Zoom 진행

3. 참석자 명단

[표 2-22] 참석자 명단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대구, 경북권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3)	포항	PA075(개별 인터뷰)	남	50대	30년
	구미	PA076	남	50대	25년
	대구	PA077	남	50대	3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지역 연극 제작 및 유통 현황
- 지역 연극 전문 유통 단체 및 공공 공연장 현황과 개선방안
- 지역 연극 지원사업 현황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경북과 대구, 상반된 두 지역의 연극 생태계

1) 대구 지역 연극 활성화

■ 대구는 상대적으로 젊은 예술가의 유입이 많고 청년층 연극인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아까 경북이랑 다르게 청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대구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친구들은 주소를 옮겨서 경북 쪽에 문화재단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친구들도 생겨날 정도로 청년층은 많이 늘어난 게 되게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희가 청년층을 발굴하려고 연극협회 차원에서 많은 정책들을 펼쳤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서 대구시의 구 단위의 자치구, 자치구 단위의 재단 혹은 구청과 해서 같이 연계하는 청년연극제 등 여러 가지 연극제 등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PA077)

2) 경북 지역은 비교적 활동 저조

■ 경북 지역은 연극과 관련된 활동이 저조하고 전문단체가 부족하며, 젊은 예술가의 유입이 적음

■ 포항 지역 내 홍보 마케팅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 시민의 낮은 인지도

"경북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광역시 중에서 아마 가장 좀 저조한 활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북, 그러니까 한국연극협회 산하의 경북지회들 소속의 각 8개 지부들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한 개의 극단과 한 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이나 안동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업극단.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하는 예술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연례적으로 그냥 지회나 지부의 사업을 토대로 하는 연극들 정도? 1년에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 하는 게 수순인 것 같고요. 더 심각한 건 젊은 친구들이 없다라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PA076)

"일단은 공연을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진짜 너무 부족하다. 특히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서 전혀 체계적이지 않고, 일단 인력이 [...] 같은 경우는 예술단이죠. 예술단 안에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일단은 홍보의 툴이나 마케팅의 방법이나 이런 것에 전무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예산도 부족하고요." (PA075)

"창단된 지가 지금 84년인가에 창단됐으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런데도 포항시 시민들 중에 ○○○○○○○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PA075)

3) 지역 축제와의 선순환 구조

■ 지역 축제가 외부와의 협력 및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일부 창출

"저희는 크게 아시아연극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연극제에서 아시아연극제로 전환이 돼서 지금까지 좀 붙들고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피한 예산이지만, 이 연극제가 저희 지역에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전국 연극제가 일단 구미의 연극하는 극단이 있다는 걸 전국에 계신 연극 선배님들이 아시게 됐었고요. 그리고 역으로 지역의 관객층들이 다양한 공연들을 보면서 눈높이들이 높아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 극단의 작품의 수준들이 수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PA076)

나. 생태계 이슈

전문 인력 부족과 지원의 불균형, 지역 연극의 고민

1) 예산 및 지원사업의 축소 경향

■ 지원 정책의 불균형과 지방정부의 지원 축소

■ 상업적이고 인기 있는 공연에 대한 지원 집중

"최근에 대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홍준표 시장 체제가 되면서 격하게 변화해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삭감하고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예산이 삭감되고 이래서, 이 여파가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예술위처럼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다 사라지고, 매년 축소되다가 올해 또 더 파격적으로 축소되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PA077)

"지역 활성으로 인해서 지원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우수공연 또는 상업적인 또는 알려진 배우들이 나온 공연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예술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지점과 상통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PA077)

2) 전문 인력 및 기획의 편중

■ 전문 인력 부족과 기획의 부재

■ 기초예술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 부재

"경북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공모지원사업 말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고, 제작 스태프들이 좀 약하죠. 음향이나 조명. 이제 기획 파트 쪽에서는 기획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획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기획자가 와서 많은 사업들을 따가서 봤는데, 그것이 연극 기초 예술의 연극을 기반으로 둔 것이 아니라, 지역은 조금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PA076)

"이 정부가 문화예술정책조의 축제를 굉장히 정리를 하면서 대표축제를 만들라고 하다 보니까 경북은 축제판이에요. 관광축제의 핵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민. 기초예술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PA076)

3) 지역 연극 홍보 체계 마련

■ 지역 연극에 필요한 고객 관리 체계와 홍보 플랫폼 부재

- 지역 연극과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필요

"고객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고객 관리가 될 수 있는 툴이 전혀 전무하다. 그것이 아마 관공서들의 모든 문제인 것 같아요." (PA075)

"전국 극장 맵이라고 있어. 그걸 들어가서 보면 돼. [...] 공연 상황, 예매까지 할 수 있는 최소한 문화 국가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PA075)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외부 협력과 내부 성장으로 지역 연극 활성화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 연극 기반 마련

1) 지역 문화예술 확산 및 기초 지원 보장

■ 지역으로의 문화예술 확산을 위하여 유통 구조 강화 필요

■ 공공지원의 연속성을 통한 지역 예술 활성화

"문체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 문화예술이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A075)

"기초예술에 대한 안전장치, 기초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하게 예술위에서, 아니면 국가 문체부에서 철학을 갖지 않는다면 이제 무너질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농담처럼 내년에 극단 문 닫을 것 같아요, 라고 한 게 그거에요. 버틸 힘들이 없는 이런 거죠." (PA076)

2) 지역 인재 지원 및 지역 내 홍보 강화

■ 지속적인 청년 예술가 지원과 소극장 중심의 지원 확대

■ 지역 연극 홍보 강화를 위한 외부 협력과 홍보 플랫폼 개선

"작은 소극장 연극제 같은 형태들이 극단들을 활성화시켰고, 대구를 떠났던 친구들이 좀 돌아오는 계기도 됐고요. 그렇게 잡은 역할도 있고요." (PA077)

"지역의 청년들이 자기 고향이나 연고를 갖고 지역으로 내려가줘서 이렇게 피를 돌게 해줘야 되는데." (PA075)

3) 지역 축제 활성화

■ 지역 연계 축제 활성화, 기존 축제의 특성화를 통한 발전

"대구시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서 대구시의 구 단위의 자치구, 자치구 단위의 재단 혹은 구청과 해서 같이 연계하는 청년연극제 등 여러 가지 연극제 등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PA077)

"대구에도 예전에 호러연극제라는 걸 해서 특성화된 어떤 연극제 중심으로 또 발전시켜 나간 적도 있고." (PA077)

4) 작품 수준 제고(외부 전문가 활용)

■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한 작품 수준 제고와 내부 워크숍 활성화

"외부 연출을 불러가지고 작품을 좀 바라보는 관점들을 다르게 봐서, 또 그런 작품들이 지금 현재 저희의 레퍼토리가 된 경우도 있고요. 경북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공모지원사업 말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PA076)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광주, 전남권

1.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16:00 ~ 18:00

2. 장소

■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 카페라운지

3. 참석자 명단

[표 2-23] 참석자 명단 [그룹6] 지역 연극 관계자 : 광주, 전남권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3)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참석자(n=2)	광주	PA078	남	50대	30년
	광주	PA079	남	50대	3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지역 연극 제작 및 유통 현황
- 지역 연극 전문 유통단체 및 공공 공연장 현황과 개선방안
- 지역 연극 지원사업 현황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문화적 발전, 연극 예산 삭감, 정책 변화 등으로
연극 관객 감소와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

1) 관객층 감소

■ 연극이 관객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연극 생태계가 점차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

>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관으로 들어왔지만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느꼈던 지점은 우리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지점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연극 순수 예술 연극 자체가, 관객들하고 만나는 어떤 그 지점에서의 어떤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거리가 생기고 있다. 그것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그게 딱 하나의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PA078)

■ 다양한 문화적 즐길거리의 증가로 인해 연극 관객층이 감소함

■ 정책적으로 야외 활동하는 예술활동을 권장하는 분위기로 실내 극장 유입 인구 감소

> "요즘 이제 세대가 너무나 핸드폰도 울리고 있지만, 핸드폰도 너무나 디지털화 되어지고 AI 시대가 돼가고 있는 이런 판국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적인 즐길거리들이 이제 주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연극이라는 어떤 순수 예술하고 관객들을 집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그때그때 바뀌겠지만 정책적으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예술 활동들을 권장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실내 극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 인구를 줄이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PA078)

2) 연극 예산 삭감

■ 연극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삭감이며, 특히 지역에서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요즘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겠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예산이에요. 지방비가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지방비를 활용해서 예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내년 사업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특히 문화예술 교육 사업 강사들은 내년에 수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PA079)

나. 생태계 이슈

관객 감소, 인력 유출, 지역 불균형, 유통 기회 부족 등으로 지역 연극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음

1) 지역 공연과 외부 공연 간 불균형

■ 외부 기획공연과 지역 공연 간 홍보 및 경영 능력 차이로 인해 지역 연극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

> “ 계속 활동하면서 느꼈던 지점은 우리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말하는 가장 큰 지점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연극 순수 예술 연극 자체가, 관객들하고 만나는 어떤 그 지점에서 예전에 비해서 점점 거리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 기획 공연들, 외부에서 유입되어지는 기획 공연들과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공연들 간의 홍보나 경영 능력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PA078)

2) 관객 감소 및 인력 유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 소비가 감소함

■ 지역 내 인력이 중앙으로 유출되어 지역 연극계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음

>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일 먼저 주머니를 닫는 부분이 이렇게 예술을 향유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전반적인 요인들이 연극 생태계를 좀 교란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공을 하고도 현장에 들어왔다가 이탈하는 인원들도 많고, 중앙으로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지역 연극계 인력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PA078)

3) 지역 간 예술 지원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

■ 지역 대표 예술단체 사업이 일부 단체에 편중되면서 지역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떤 지역에서는 2억 5천을 쉽게 내놓을 수 있지만, OO나 OO처럼 예산이 부족한 곳은 1억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PA079)

4) 지역 문화재단 기초 예술 지원 부족

■ 문화재단이 지역 예술가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 문화예술 예산이 축제 위주로 집행되고 있음

> "문화재단이 운영비는 많지만, 정작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부족해요. 결국 문화예술 예산이 축제 위주로 빠지고, 정작 기초 예술 지원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연극보다는 트로트 가수 한 명 부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식의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PA079)

5) 지역 예술가의 기회 부족 관련

■ 지역 예술가들은 작품 유통 기회 부족과 인지도 문제로 창제작 지원사업에서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음

> "창제작 지원 사업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선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지역에서는 유통될 기회가 없고 중앙에서는 작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역 예술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희곡만 40여 편을 썼고, 작품이 춘천이나 대구, 부산에서는 공연되었지만 서울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심사위원들은 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PA078)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지역 연극 활성화를 위해 홍보 플랫폼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 지역 공연 유통 활성화 등 필요

1) 지역 예술 플랫폼 강화

■ 지역 예술의 홍보 플랫폼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객 유입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

- 공연 정보 외에도 예매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OO지역은 'OOOO'라는 홍보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아직 활용이 부족해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연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연 정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매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PA078)

2) 지역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활동 방안 마련 필요

■ 지원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지역 창제작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구조 마련 필요

> "지원사업이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창제작자들이 작품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없어지면서 '신나는 예술여행' 같은 유용한 사업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PA079)

3) 지역 공연 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 공연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필요함

> "이제 지역 예술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속적인 지원과 유통의 문제예요. 지역에서 창작된 작품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잘 안 되어 있죠. [...]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예술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식과 유통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A078)

[그룹7] 주제별 그룹 : 기술 융합 창제작 및 유통

1. 일시/장소

■ 서면 인터뷰 진행

2. 참석자 명단

[표 2-24] 참석자 명단 [그룹7] 주제별 그룹 : 기술 융합 창제작 및 유통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참석자(n=3)	민간	PA085	남	50대	20년
	민간	PA086	남	50대	25년
	민간	PA087	남	50대	30년

3.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연극 분야의 기술 융합 창작 시도 배경 및 계기
- 전문 인력 교육
- 기술을 활용한 연극 창제작 및 유통 현황과 특징
- 기술 발전과 연극 분야의 대응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기술 융합 작품과 관객 반응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4.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기술융합 창제작이 시도되고 있으나, 연극분야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이며, 기술 활용 유통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증가함

1) 기술 융합 창작 시도 배경 및 계기

■ 연극 분야에서 기술 융합 창작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계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도입과 4차 산업혁명 담론의 확산에 있음

- 문화융성 정책과 예술위 및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이 기술융합 공연의 창작 유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일부 실험적 사례들이 공연계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함

"문화융성이라는 정책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4차 산업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에서 <문화예술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방안 연구>발표가 있었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융복합 무대기술 매칭지원> 사업을 통해 본격화 되었습니다. 도입 동기는 예술적 실험과 새로운 연출효과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PA086)

"연극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기술 융합 창작 시도와 관련한 반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문화예술기관들의 선도적인 지원사업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예술위의 <공연예술 창작확장 프로젝트>, 해당 사업이 국악과 무용 중심이었다면 2016년 콘진원의 사업, 특히 놀공의 <Being Faust>나 헤드쿼터: 무제의 길의 <Plug in City>의 경우 당시로서는 드물게 게임과 기술 등이 결합한 형태로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아르코의 <2017년 가상공간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모형 개발 지원 사업>부터는 (비영리 중심으로) 연극계에서 관심을 갖다가 이후 연극 장르의 다양한 극단, 제작사에서 여러 시도를 하였다고 기억합니다." (PA087)

2)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현황

■ 대학 커리큘럼 및 일부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나 실무 중심의 경험 기반 학습 비중이 더 높음

- 현장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재설계가 요구됨

"가장 많은 교육이 진행되는 곳은 대학교의 연극전공이라고 보입니다. [...] 이외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뉴콘텐츠아카데미> 등의 교육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부분의 교육은 자신이 작품을 만들면서 경험적으로, 귀동냥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연극에서의 구현에 대해서는 보다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실무적으로 실제 작품에 응용할 수 있으려면 적용하려는 기술에 익숙한 것은 물론 '견적'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무빙 라이트 대극장에서 사용할 몇 와트규모의 장비는 하루 렌탈료가 얼마인지, 프로젝터 몇 안시는 하루 렌탈료가 얼마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타 기술 관련해서 이러한 것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일상에서의 활용, 응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PA087)

3) 기술 활용 창제작 및 유통

■ 창제작 측면에서는 프로젝션 맵핑과 영상, 입체 음향 등이 가장 널리 활용되며, 실시간 인터랙티브 기술 및 VR/AR은 하드웨어 제약으로 제한적임

■ 유통 측면에서는 SNS 마케팅은 보편화되었으나 스트리밍 등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창제작에서는 프로젝션 맵핑을 통한 무대연출 등 영상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향을 활용한 이머시브극이 주로 보입니다. 360사운드를 활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VR, AR 등의 기술은 하드웨어 활용에 한계가 있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홍보에 있어서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은 이미 활성화 되어있고,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팬더믹 시기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후에는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공연 홍보의 매체로는 큰 변화와 활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아직 영향과 효과가 작다고 보여집니다." (PA085)

4) 기술 발전에 대한 연극 분야의 대응

■ 연극계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의견

- 일부 창작자. 스태프는 기술 습득을 시도하고 있으나, 배우 등 전통적 연극인 중심으로 인식의 격차가 존재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형식의 연극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작품들은 텍스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과거로부터 이어온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나마 스탭들은 변화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장비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습득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도 갖고 있습니다. 연출도 어느 정도 그러하다고 보입니다. 배우들의 경우 아직 인식의 격차가 대단히 크다고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무관심하거나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는 것과는 별개로 세상은 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Automation을 쓰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무빙 라이트, 맵핑, LED, 앱 등을 활용하는 연극 등이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다만 배우들은 어떠한 세상이 온다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바뀌려고 노력해야하는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 약하다고 보입니다. 변화가 연극 장르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의 노력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솔직히 중장년 이상의 연극인들은 상당수가 Art & Tech 라는 지원이 새로 생겼을 때부터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무관심과 반발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A087)

"생성형 AI등의 기술활용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써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매우 발전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하는 예술가의 몫이 되었습니다. 연극분야는 무대와 배우, 관객의 삼각 구도에서 변화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응보다는 외면에 가까웠다고 보여집니다. 관객은 여러각도에서 공연을 찾을 이유가 전통적인 이유외에는 찾을 이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음향기술융합 공연의 경우 기술보다 예술영역에서 기술에 대한 접근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며, 기술자는 예술가의 파트너로 소통해야함에도 아직까지 예술적 상상을 기술자가 실현시켜 주기만을 바라고 있음. 예술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PA085)

나. 생태계 이슈

기술 융합 작품이 관객층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변 확대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함

1)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연극계의 기술 융합 창작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주요 과제로는 예산 부족, 인력 역량 미비, 기술 장벽 및 기술자와의 협업 미숙 등이 지적됨

■ 전통 연극 방식과의 정체성 충돌도 빈번하며, 변화에 대한 연극계 내부의 수용성 부족이 시급한 개선 과제로 나타남

- 세대 간 관점 차와 보수적 태도가 지속적인 시도와 경험 축적을 막고 있음.

"종합예술인 연극 분야에서 지원금은 늘 작품 제작의 최소 요건을 맞추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연극인들에게 아직도 기술 융합은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연극계로 전문 인력이 많이 유입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열악한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경우, 실제로 기술 융복합 작품을 시도하고자 해도 하드웨어(극장조건)가 받춰주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더 많은 상상력과 기술융합으로 공간적 제약, 예산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가장 먼저 써야할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관료, 게런티, 각종 디자인 및 제작비 등으로 판단되는 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 기술 융합이라는 시도를 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렇게 경험이 잘 축적되지 않다보니 창작자들의 경험부재로 인해 역량도 높아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PA087)

"예술의 특수성, 연극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예술가의 아이디어가 완성도 있게 무대에 구현될 수 있는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기술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술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의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와 아티스트가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협업과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PA086)

2) 기술 융합 작품과 관객 반응

■ 관객은 기술 활용 여부 자체보다는 '새롭고 기억에 남는 예술적 경험'을 중시함

- 젊은 관객층은 기술적 시도에 대해 호기심과 수용도가 높고, 중장년 관객층은 변화에 대해 기술적 진입 장벽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

"기술 활용 연극의 경우, 또 다른 창작자와 관객층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연극이라는 장르에 익숙하지 않거나 연출, 배우가 스타성이 없더라도 '새로운, 신선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호기심을 갖는 주로 '젊은 층'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관객에 있어 반대의 경우도 더러 보이는 데 앱을 활용하거나 이동성이 많은 경우 중장년 이상의 관객들은 다소 거부감 혹은 소극적인 경향도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게임형이나 앱을 설치하고 진행하는 작품들에 대해 중장년층은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을 활용했다 안했다의 여부보다 서사구조나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PA087)

3)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

■ 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제약하는 결과 중심의 지원사업을 개편해야 하고, 완성도에 대한 보수적 잣대를 개선해야 함

- 관련하여 단계별 실험 지원, 기술 코디네이터 인력 육성, 예술-기술 융합 교육 확대 등이 중장기적 과제로 부상함

"기술의 경우 연극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극 활용을 위한 연구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엔지니어와의 협업에 있어서 예술가의 작업방식, 목표하는 방향과 분명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소통을 위한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엔지니어의 작업방식을 이해하는 예술가,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가의 작업방식을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동등하게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A086)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예술가의 카이스트 문화기술 대학원 6개월 연수 등 정책적 차원에서 예술대학 학생들의 융합교육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문화예술+기술+비지니스 문화예술해커톤을 주최한적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고의 유연성을 획득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PA08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단기 성과 중심 탈피와 생태계 조성 플랫폼으로의 공공지원 전환 요구
실험과 협업이 가능한 환경 마련과 코디네이터 양성, 융합 교육이 필요함

1) 공공부문 예술지원과 예술위의 역할

■ 연극 창작자가 기술 실험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예술가-기술자 간 협업을 위한 기술 코디네이터 양성, 기술 융합에 대한 교육 체계가 필요함

"충돌하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충동로 인한 시행착오의 결과를 누가 책임질것인가를 물었을 때, 결과론으로 예술가가 온전히 감당해야한다면, 기존 예술가는 도전에 방어적일것입니다. 과정과 시행착오에 기꺼이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창제작지원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PA085)

"엔지니어와의 협업에 있어서 예술가의 작업방식, 목표하는 방향과 분명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소통을 위한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엔지니어의 작업방식을 이해하는 예술가,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가의 작업방식을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동등하게 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을 것입니다." (PA086)

"중고 교육에서 예술과 기술융합 교육은 매우 필요하며, 대학교육에서 기술인력의 예술교육과 예술인력의 기술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사안이라고 봅니다." (PA085)

2) 제도적 개선의 방향성

■ 기술 융합 연극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구조 필요
■ 단순한 재정지원 기관에서, 기술 융합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재하는 플랫폼 역할로 나아가야 할 것임

"가장 필요한 것은 지원제도의 안정성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고집센 연극인들이 무관심하거나 분노로 대응하더라도 끊임없이 국내외 전문가와의 워크숍, 특강,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을 높여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종국에는 미래의 세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술한 〈Tempest〉처럼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꼭 하나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든 발굴, 개발, 완성하여 유통까지 이어진다면 오랫동안 회자되며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PA087)

"지원 방식에 있어서 예술가의 작품이 극대화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조언하고 접목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기관이 기술지원 노하우를 쌓고 예술가의 상상력을 실현시켜주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더 스페이스(The Space)'재단이 있습니다. The Space는 Arts Council England와 BBC가 설립한 디지털화 영상화 지원기관으로, 예술 및 문화 부문 전반에 걸쳐 디지털 참여에 도움을 주고있는 핵심 기구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구축하고, 단체가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PA086)

[기타] 중간정리 간담회 : 전국 유통, 홍보마케팅 등

1.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18:00 ~ 20: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1실

3. 참석자 명단

[표 2-24] 참석자 명단 [기타] 중간정리 간담회 : 전국 유통, 홍보마케팅 등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4)	공공	PA-A	여	50대	35년
	민간	PA-B	남	50대	33년
	공공	PA-D	여	40대	15년
	민간	PA-E	-	-	-
참석자(n=4)	유통/홍보	PA080	남	50대	30년
	유통/홍보	PA081	여	50대	23년
	유통/홍보	PA082(Zoom 참여)	여	30대	14년
	유통/홍보	PA083	여	50대	28년

4. 주요 논의 사항

■ 연극 분야 내부적 요소
- 연극 제작 및 유통 일반
- 지역 연극 제작 및 유통 현황
- 지역 연극 전문 유통 단체 및 공공 공연장 현황과 개선 현황
- 활동 영역 확장 : 수도권 ↔ 그 외 지역, 해외진출
- 분야 홍보마케팅 현황
- 지역 연극 지원사업 현황

■ 연극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분야 내 홍보 및 유통 관련 문제와 어려움
- 공공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
- 전반 생태계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과제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연극 생태계는 시장에 대한 인식 부족, 지역 격차,
독점 구조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1) 공연시장에 대한 인식 부족

■ 연극 공연시장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음

■ 연극인들조차 시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유통하고 마케팅,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 용어잖아요. 시장에서 쓰는 경제 용어인데 이 부분을 논하기 전에 과연 우리의 공연 시장은 진짜 있는가? 공연 시장은 안전한가? 또는 공연 시장에 대해 정말로 다들 관심은 정말 있는가? 그러니까 그냥 저희 홍보 마케팅이 필요해, 라고만 얘기하지, 진짜 연극이나 이런 공연을 제작하면서 경제 개념을 갖고, 시장 개념을 갖고 정말 그걸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근데 사실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그냥 나는 공연만 할 테니 티켓은 너희들이 알아서 팔아줘, 라고 하는 좀 막연한 걸 요구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봐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공연 시장에 대한 부분, 이걸 다시 한 번 좀 면밀히 다시 한 번 좀 분석을 하고 공연 시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도 많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PA080)

2) 중앙 - 지역 격차

■ 서울과 지역의 연극 생태계는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임

■ 중앙 지원금이 지역 단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서울에서 공연할 때와 지역에서 공연할 때 공연에 대한 분위기도 다름

"저는 사실 서울이 원래 근간이었고 서울에 있는 공립극단에도 있었고, 23년 차 공연 기획 제작자인데 지역에 내려간 건 처음입니다. 항상 서울에만 있다가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게임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은 지역 나름의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안에서 시스템이 따로 있긴 한데 그게 서울과 굉장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 중앙에서 하는 지원금들은 지방에서는 받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예를 들면 서울에서 공연을 하면 '잘했어, 대관비 지원해 줄게' 하는데, 지역에서 공연을 하면 '거기선 왜 공연해?'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PA081)

3) 특정 공연/단체의 독점

■ 연극 시장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함

■ 다만,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일부 작품과 단체만이 생존하며, 브랜드화 전략이 필수적임

> "연극의 시장이 아예 없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승자독식의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 극단이냐 제작사냐를 떠나서 기존의 마니아층들이 우리 공연을 믿고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좀 고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단체랑 우리 공연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PA082)

나. 생태계 이슈

공공 개입, 중앙 진출 제한, 지역 유통의 어려움,
레퍼토리 구축 한계 등으로 연극 시장의 자생력이 약화됨

1) 공공의 유통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 공공에서 저가 정책으로 연극 유통에 개입하면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민간 공연 단체의 자생력이 약화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나치게 낮은 가격대 형성으로 인한 부작용

> "공공에서 했을 때 향유의 목적이라면 물론 저렴하게라든지 이런 복지 차원도 할 수는 있겠지만,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이미 5천 원 시장대로 형성을 해놔 버리면, 오히려 민간은 우리가 티켓 팔아서 갈 수 있는 시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것은 시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공에서 이런 식으로 유통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을 하면 결국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PA080)

2) 중앙 진출의 어려움

■ 지역에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중앙 지원체계가 지역 단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 중앙에서 지역 진출은 쉬운 구조임

> "지역에서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을 대관 지원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 서울의 지원금 체계가 지역 극단들이 서울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서울에 오는 건 어렵고, 서울이 지역으로 가는 건 오히려 더 쉬운 구조니까요." (PA081)

3) 지역 공연 유통 관련

■ 지역 공연유통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기획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제작사와 극단이 그 역할까지 맡으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역의 채널이나 환경은 지역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죠. 단순히 공연을 가져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와 관객 개발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각 지역의 유통 전문성까지 제작사나 극단이 떠안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 결국 지역별 유통을 담당할 전문 기획자나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 그런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제작사들이 모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PA082)

4) 레퍼토리 공연 구축의 어려움

■ 연극 작품의 지속적인 레퍼토리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장기적인 공연이 어려운 상황임

> "어렵게 만들어진 작품 하나가 단기간에 한 번만 진행되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여러 해, 여러 번 공연을 해서 단체의 대표 레퍼토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레퍼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PA083)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공공의 적절한 개입, 지역 기획 역량 강화, 민간 단체의 시장 진입 기획 확대 필요

1) 공공의 적절한 개입 관련

■ 공공지원이 연극 시장의 활성화가 아닌 시장 왜곡,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양성 차원에서의 개입은 긍정적이지만, 단순 향유, 보급을 위한 조달 사업으로 개입 시 시장이 축소될 수 있음

> "공공에서 시장에 돈이 들어올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다각도로 검토해야 돼요. 단순히 지원금이 많아진다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 다양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OO이 공적자금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면 명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향유와 보급을 위한 조달 사업으로 개입하는 순간, 시장 구조가 무너지고 연극 시장은 오히려 축소됩니다." (PA080)

2) 지역 내 기획 공연장 역량 강화 필요

■ 지역 공연유통은 기획자 부족과 체계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 공연유통의 성공을 위해 전문 기획자, 시스템은 필수적 요소임

> "제가 봤을 때는 지역마다 기획자가 부족해서 유통 지원사업이 있어도 어떤 공연이 좋은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공연을 단순히 계약 문제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 관객과의 접점을 고민하지 않다 보니 공연이 정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기획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원사업을 늘려도 유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지역별 유통을 담당할 전문 기획자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PA081)

3) 공공지원의 편중 관련

■ 공공의 특정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민간 단체들의 기회가 줄어들었음

■ 공공지원이 특정 작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OOO의 OOO 작품이 심사 없이 프리패스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OOO 선정 작품은 별도의 경쟁 없이 유통 지원사업에서 우선 선정된다는 거죠. [...] 일반 경쟁을 해야 하는 다른 민간 단체들 입장에서는 TO(지원 가능 자리)가 줄어들어 오히려 기회가 감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공지원이 특정한 흐름을 가진 작품들만 성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A082)

4) 시장 진입 기회 확대 필요

■ 공공의 지원이 특정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에 집중되면서, 새로운 작품과 민간 공연 단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잃고 있음

■ 지역 내 민간 단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 "결국 공공기관 내부에서 공적 자금을 가지고 자기네 지역의 시민 문화 향유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 공연 단체가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 지역에서 공연을 올리는 단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들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새로운 작품과 단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A083)


한국문화예술위원회